

근대 한국유학사의 형성*

-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중심으로 -

노 관 범**

1. 머리말
2.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배경
 - 1)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저술들
 - 2) 한국유학사를 보는 사관들
3. 『조선유교연원』의 한국유학사 지식
 - 1) 『조선유교연원』의 목차 구조
 - 2)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비교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 유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광복 70주년이 넘는 지금 이 물음을 둘러싼 情調는 다소 비장하다. 근대 한국학 지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한국 유학사 지식의 학문적 체계화 작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崔英成은 한국 유학 연구의 문제점으로 인물 중심 연구, 경학 연구 부진, 문중 유학의 폐단 등을 거론한 바 있다.¹⁾ 또 한국 유학사 서술의 문제점으로 목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1) 최영성, 2000 「東洋哲學研究五十年史」 『韓國思想과 文化』 10, 243-247면.

적의식의 불명, 사관에 대한 성찰의 결여, 역사 서술 방법의 미숙, 사상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무관심, 성리학에 집중된 서술 등을 거론한 바 있다.²⁾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과연 지금 모두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약 50년 전 洪以燮은 玄相允의 『朝鮮儒學史』와 李丙燾의 『資料韓國儒學史草藁』를 비교한 결과 둘 다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골격으로 삼아서 흥미롭게도 한국유학사 서술의 범주에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관찰하였다. 그래서 둘 다 본질적으로 『조선유교연원』과 다를 바 없이 유학자 개개인의 학설을 소개하는 유학사 이해에서 그쳤고 사상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충분히 유념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³⁾ 그는 장지연, 현상윤, 이병도의 유학사가 학설사를 벗어나 사상사, 특히 '사회사상사'에 진입하지 못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⁴⁾ 한국 유학사가 사상사의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 유학자의 언설을 모은 자료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홍이섭의 날카로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한국 유학사 저작들에서 저자의 주체적인 유학관과 역사관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⁵⁾

문제의 원천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근대 한국유학사 저술의 시초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여기에 한국유학사에 관한 근대적인 지식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는 회의적이다. 단적으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는 한국 유학자들의 이름은 풍부히 언급되지만 그들에 대한 사상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⁶⁾ 불운하게도 『조선유교연원』의 이와 같은 취약점은 장지연과 儒者·儒學者 논쟁⁷⁾ 벌였던 동시기 일본인

2) 최영성, 2005 「한국철학사로서의 조선시대 유학사 및 성리학사 서술방법의 탐색」 『東洋哲學研究』 43, 54-62면.

3) 홍이섭, 1964 「서평: 玄相允, 『韓國儒學史』」, 『人文科學』 11,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84면. 홍이섭이 원했던 한국 유학사 저술은 이를테면 丸山眞男의 『日本政治思想史』(1952) 또는 Fairbank의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s*(1957)와 같은 수준의 저술이었다.

4) 홍이섭, 1962 「한국사회사상사의 방법」 『韓國思想』 3, 한국사상연구회(한국사상연구회 편, 1973, 『한국사상총서 III』에 재수록).

5) 윤사순, 2003 「한국 유학사상 서술의 과제와 의의」 『국학연구』 3, 21면.

6) 김승혜, 2001 「한국유교 연구 100년」 『한국종교연구』 1, 3면.

7) 장지연과 고교형이 1915년 '유자'와 '유학자'에 관해 다투었던 논쟁이다. 양자의 근본적인

학자 高橋亨의 학술적 업적과 대비된다. 고교형의 조선유학사 연구는 물론 식민주의 학문이었으며 그가 창안한 주리과, 주기과, 절충과의 분류법 역시 조선 성리학의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지만,⁸⁾ 적어도 고교형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근대 학문의 성격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고교형의 『朝鮮儒學大觀』(1912)과 비교해 그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고교형은 조선 유학자를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근대 학술서를 생산한 반면, 고교형의 부정적인 조선유학관에 대한 학술적인 대응에서 나온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주자학적 도통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료집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공맹 당대의 ‘유자’와 漢代 이후의 ‘유학자’를 구별하여 유학에서 철학과 실천을 분리하고 철학에 집중했던 고교형의 근대적인 학문관과 유자 이외의 유학자를 상정하지 않고 학문과 실천의 통합으로서 유학을 사유했던 장지연의 전통적인 학문관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⁹⁾

다른 시각도 있다.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하겸진의 『동유학안』을 나란히 일제식민지시기 학문적 저항의식에서 태어난 조선유학사 저작으로 보는 한 연구는 『조선유교연원』에 전통적 유학사와 근대적 유학사의 성격이 병존했음을 설명하면서, 淵源錄體의 지식과 조선유학의 道統觀을 전통적 유학사의 특징으로, 시기구분의 설정 및 시기별 주요 논변과 사건의 제시, 특정 학파 중심의 서술 탈피를 근대적 유학사의 특징으로 거론하였다.¹⁰⁾ 그러나 기본 목차도 갖추지 못한

차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주체를 ‘유자’로 볼 것인지 ‘유학자’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承律, 2004 「日帝時期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동양철학연구』 37; 홍원식, 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토오루의 ‘유자·유학자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 13, 예문서원; 최재목·이효진, 2009 「장지연과 고교형의 지상논쟁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32; 김미영, 2011 「타카하시 토오루(高橋亨)과 장지연의 한국유학사관」, 『대동철학』 55.

8) 이형성, 2011 「타카하시 토오루의 조선유학사 서술의 문제점」, 『대동철학』 55; 이기용, 2011 「타카하시 토오루의 조선유학 이해의 허와 실」, 『대동철학』 55; 정일균, 2011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주의적 근대지식의 형성」, 『사회와 역사』 91.

9) 이동희, 2007,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특징에 대하여: 다카하시의 「조선유교대관」과의 비교」, 『한국학논집』 3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 글은 『조선유교연원』에서 양명학 문제, 호락분열, 경가분열 등을 서술한 정도를 부분적으로 근대적인 학문관의 소산으로 인정하였다.

책을 근대적 유학사 저작으로 볼 수 있을까?

냉정히 말하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근대적인 학술 저작에 미달한 인물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책이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이어받은 현상윤과 이병도의 유학사 저작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태의 심각성은 『조선유교연원』의 당대적 파급력에서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선유교연원』은 단행본 책자로 출간되기 앞서 『매일신보』에 장기간 연재된 신문 칼럼이었는데, 미디어의 전파력에 힘입어 당시 조선의 지식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薛泰熙는 한중 양국의 국망이 宋學의 虛論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중 「조선유교연원」 연재물을 읽고 평소의 생각을 굳혀 「理氣辯」을 지어 조선 성리학의 ‘주리론’을 비판하였고,¹¹⁾ 自然, 實用, 民本의 차원에서 유학을 재해석하고 이것을 공맹 유학의 본래적 성격으로 제시하였다.¹²⁾

한편 玄相允의 경우 그가 지은 『조선유학사』가 유학사 저술의 기초, 방법, 순서, 자료 등에 있어서 『조선유교연원』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¹³⁾ 이병도에 따르면 그는 일본 유학 시절 매일 「조선유교연원」 연재물을 스크랩하며 애독하였고 후일 이를 참조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하였다.¹⁴⁾ 李丙燾는 1923년 역사 연구를 처음 시작할 무렵 退粟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유학사부터 착수하였는데, 장지연이 고교형의 부정적인 조선유학사관에 대항하여 「조선유교연원」을 집필했듯 이병도의 연구 역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의 통념에 포위된 조선유학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을 수 있다.¹⁵⁾ 이렇듯 『조선유교연원』이 식민지시기 조선의 지식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조선 성리학 연구와 조선 유학사 저술을 자극했다면,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한계가 후대의 한국유학사 저술에 지속된 것도 어쩌면 당연

10) 정성희, 2013 「식민지시기 조선유학사 정리 작업에 대한 연구: 張志淵과 河謙鎭의 저항적 조선유학사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2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薛泰熙, 『學林小辯』 「一. 理氣辯」. 설태희는 二程, 朱熹, 李滉, 李珥의 이기론을 모두 主理로 보고 ‘주리는 허론이라고[主理是虛論]’ 단언하였다.

12) 조형열, 2004 「薛泰熙의 協同組合主義와 ‘文化運動論」, 『韓國史研究』 130, 225-229면. 설태희 사후 그의 학문은 ‘花潭實學’을 계승하고 양명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3) 崔英成, 1997 『韓國儒學思想史 V』, 아세아문화사, 337면.

14) 鄭萬祚, 2012 「斗溪 李丙燾의 韓國儒學史 연구와 그 意義」, 『震檀學報』 116, 347면.

15) 위의 논문, 348면.

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뿐인가? 우리는 그것으로 『조선유교연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확한 평가에 도달했다 할 수 있는가?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 곧 ‘한국 유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우리는 『조선유교연원』에서 아무런 역사적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조선유교연원』의 한국유학사 지식이 단지 전통적인 인물 계보 지식에 머물러 있고 과연 사상사로서의 근대적인 역사 지식을 성취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조선유교연원』이 세부적으로는 인물과 학설의 자료집으로 비칠지 모르나 구성적으로는 한국 유학사를 통관하는 근대 역사 지식을 구축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유교연원』의 새로운 독법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유교연원』 이전의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저술들을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또한 근대전환기에 대두하는 한국유학사를 보는 사관들을 특징적으로 검출한다. 전자의 작업을 통해 『조선유교연원』이 나오기까지의 유서 깊은 한국유학사 저술 전통을 일별하고 그 위에서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면, 후자의 작업을 통해 일견 형식상 전통적인 유학사 저술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조선유교연원』이 근대전환기 자국 유학을 바라보는 특정한 역사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자국 유학사 지식을 창출했는지 『조선유교연원』의 내면에 침투한 역사의식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유교연원』의 배경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둘째, 『조선유교연원』을 단행본으로 독해하는 대신 신문 연재물로 독해하여 이 작품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시도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주로 단행본을 읽었음과 달리 신문 연재물을 읽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매일신보』 1917년 6월 29일자 「조선유교연원」 기사는 1917년 4월 5일부터 시작된 「조선유교연원」의 연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재 내용을 예시하는 연재자의 설명문과 같은 것으로 장지연의 조선유학사관이 잘 드러난 중요한 글이지만 단행본의 체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된 듯 『조선유교연원』에서는 누락되고 말았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유교연원」은 신문 연재물이기 때문

에 연재된 낱짜에 따라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조선유교연원』은 이와 같은 형식이 모두 철거되고 내용별로 통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인 독해가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단행본에서 신문 연재물로 텍스트를 옮겨 이에 대한 구조적인 독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조선유교연원』에서 근대 학술서로서의 목차 체계를 검출하고자 한다.

셋째, 『조선유교연원』의 내적 구조를 통해 재현된 목차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한국유학사 지식 체계의 같고 다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유교연원』은 장절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장절의 구분이 있는 『조선유학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인 항목의 배열 순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선구적인 언급이 있었다.¹⁶⁾ 이 논문에서는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양자의 지식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끝에 『조선유교연원』이 성취한 근대 역사 지식의 완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결국 이 논문은 『조선유교연원』의 구성적 특징을 목차 체계의 재현으로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이 작품의 한국유학사 지식이 근대 역사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종래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인물 자료집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시야를 『조선유교연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조선시대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문헌들과 근대전환기 한국유학사 소품들, 그리고 해방 후 간행된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와 근대를 아울러 한국유학사 문헌의 통시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 종래 한국유학사 문헌에 대한 통시적인 검토로는 도통 관념에 입각한 전근대 유학사 문헌이 理氣論과 實學 중심의 근대 유학사 저작으로 전환되는 맥락을 ‘학안에서 철학사로’ 독해한 연구가 있었다.¹⁷⁾ 향후 이와 같은 통시적인 시각에서 근대 한국유학사 지식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기를 바란다.

16) 고영진, 1994 「한글로 쓴 최초의 한국유학통사」 『역사와현실』 14, 256면의 각주 47번.

17) 김태년, 2010 「학안에서 철학사로: 조선유학사 서술의 관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학연구』 23.

2.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배경

1)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저술들

일반적으로 한국유학사 하면 근대 이후 출현한 한국학의 고전적인 저술들, 곧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위시하여 현상윤, 이병도 등의 여러 저술들이 연상되기 쉽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선유학사에 관한 전통적인 문헌들이 적지 않게 산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유교연원』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의 하나로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문헌들의 흐름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학사 문헌들의 출현 배경으로는 사림의 성장과 도통의식의 강화가 주목된다. 성종대 이후 사림세력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師友錄은 조선유학사의 저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테면 金宗直의 「門人錄」, 金宏弼의 「師友門人錄」, 鄭汝昌의 「師友門人錄」, 南孝溫의 「師友名行錄」 같은 문헌들은 사림의 정치적, 학문적 동류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⁸⁾

선조대에 국가에서 간행한 『國朝儒先錄』은 16세기 조선 사림의 뚜렷한 도통의식이 반영되어 작성된 일종의 조선유학사 저술이다. 조선전기 도통의식은 15세기의 '李齊賢-李穡-權近'에서 중종반정을 거치면서 16세기의 '鄭夢周-金宗直-金宏弼'로 대체되고 있었는데, 선조 즉위 후에는 김굉필,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4인에 대한 문묘종사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들 4인의 행적과 사상을 기념하여 『국조유선록』이 제작되었다.¹⁹⁾ 이들 4인에 李滉을 더한 이른바 '東方五賢'의 문묘종사가 광해군대에 실현됨에 따라 『국조유선록』은 이황 이전 조선시대 유학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문헌이 되었다. 실제로 『국조유선록』에 기재된 4인의 언행과 사적은 '吾東方道學之領袖'라고 평가되기까지 하였다.²⁰⁾

또한 『국조유선록』이 조선의 도통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조선유학사 저술로 수용됨에 따라 이들 '國朝四賢'에 정몽주를 더한 5인의 언행과 사적을 보다 자세히 증보하여 저술한 『海東儒先錄』이 출현하였다.²¹⁾ 『해동유선록』의 편찬자 李喜朝

18) 고영진, 2009 「박세채의 학문과 儒學史 인식」 『한국사상사학』 32.

19) 진상원, 2005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한국사연구』 128.

20) 琴蘭秀, 『惺齋集』 권2, 「題國朝儒先錄後」.

는 宋時烈, 朴世采, 李端相 등의 주자학을 계승한 숙종대 산림학자로 조선시대 유현들의 도학 문자를 편집하여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제작, 숙종대의 聖學 교재로 진상한 바 있다.²²⁾ 그 밖에 鄭述의 문인 朴壽春은 조선시대 '국조사현'에 김종직과 이황 등을 더하여 『東方學問淵源錄』을 편찬하였다.²³⁾

조선시대의 본격적인 유학사 저술은 吳希吉의 『道東淵源錄』과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에서 시작한다. 『도동연원록』은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 99인의 행적과 유문을 수집하여 편찬한 저술인데, '箕子-鄭夢周-吉再-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金麟厚-成渾-李珥'라고 하는 李珥 중심의 명확한 도통의식이 발현되어 있고,²⁴⁾ 대체적으로 서인계 호남사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²⁵⁾ 『동유사우록』은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 766인을 시기별, 문인별로 나누어 서술한 저술인데, 鄭夢周-吉再-金宏弼-鄭汝昌-趙光祖-金安國-李彥迪-徐敬德-李滉-鄭述-李珥-成渾 등 12인을 '선생'으로 존승하였고 전체적으로 이황·조식 학파보다는 이이·성혼 학파에 비중을 두었다.²⁶⁾ 박세채의 문인 李世瓌은 스승의 업적을 계승하여 『東儒師友錄續集』과 『東儒師友錄後續集』을 편찬하였는데, 전자는 『동유사우록』 원집에 누락된 인물들을 보충하고 鄭述의 문인들과 金長生의 문인들을 추가한 것이고, 후자는 宋浚吉의 문인들, 宋時烈的 문인들, 朴世采의 문인들, 尹拯의 문인들을 추가한 것이다.²⁷⁾

『동유사우록』과 그 후속편들이 서인-소론의 시각에서 조선유학사를 정리한 것이라면 黃德吉이 편찬한 『道學源流纂言續』은 근기 남인의 시각에서 조선유학사

21) 『海東儒先錄』(국립중앙도서관 BA2510-2).

22) 노관범, 2002 「肅宗代 『東賢奏議』 편찬의 學術史的 이해」, 『규장각』 25; 노관범, 2009 「이희조(李禧朝)의 학술교류와 숙종대 주자학의 동향」, 『역사문화논총』 5. 『東賢奏議』는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등 문묘에 종사된 아홉 유학자의 글에서 聖學에 긴요한 경세 문자를 선별한 책이고, 『續經筵故事』는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5인이 경연에서 개진한 진강 문자를 선별한 책이다.

23) 朴壽春, 『菊潭集』 권2, 「東方學問淵源錄序」.

24) 『道東淵源錄』 「道統淵源」 및 吳以井의 「序」.

25) 고영진, 2005 「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7.

26) 고영진, 2009 앞의 논문.

27) 李世瓌, 『果齋集』 「題東儒師友錄續集後」.

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도학원류찬언』을 편찬하여 복희·신농에서 시작하여 王守仁 같은 명대 유학자에 이르기까지 중국 유학사의 흐름에 따라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기술하였고, 이 작품의 후속 작업으로 『도학원류찬언속』을 편찬하여 箕子에서 시작하여 李瀼에 이르기까지 조선 유학자 220인의 행적을 10개의 편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²⁸⁾ 기사에서 시작하여 이익으로 끝맺는 방식, ‘李子’(李滉) 다음에 ‘寒岡鄭先生’(鄭述)를 배치하는 방식 등 근기 남인의 시각이 진하게 담겨 있다.

조선후기에는 조선유학사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과 더불어 특정한 학맥이나 특정한 지역의 유학사에 집중하는 작품들도 출현하였다. 이를테면 율곡학과의 湖洛 분기 이후 湖學 계열의 학인 宋欽人이 편찬한 『東方淵源錄』은 ‘李珥-金長生-宋時烈-權尙夏-韓元震-宋能相-宋煥箕’를 율곡학과의 적통으로 간주한 연원록이었다.²⁹⁾ 반면 낙학 계열의 金洛鉉은 ‘李滉-李珥-宋時烈-金昌協’의 4인의 문자를 선별하여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편집, 『溟東粹言』을 편찬하였다.³⁰⁾ 조선후기 호학과 낙학의 성립에 관해서는 金元行의 문인 黃胤錫의 「記湖洛二學始末」이 자세히 전하고 있으며,³¹⁾ 고종대 산림 朴性陽은 19세기 호락 분열의 폐해를 반성하고 호락 유현을 모두 존중하는 취지에서 『湖洛源流總目』을 편찬하였다.³²⁾

호락학과의 유학사 저술과 더불어 지역 유학사 저술도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헌은 吳相奎가 지은 「關北淵源錄」인데, 이 글은 함경도 유학사의 시작을 李箕洪의 도를 이어받은 회령 지역 吳鈇 형제 연원, 宋時烈的 도를 이어받은 종성 지역 崔愼 연원, 金昌協의 도를 이어받은 경성 지역 李載亨 연원, 이렇게 3파로 분류하였다.³³⁾ 이 가운데 김창협이 낙학을 계승하는 이재형 학맥

28) 黃德吉, 『道學源流纂言』(규장각奎12240) 및 黃德吉, 『道學源流纂言續』(규장각想白古920.6-H991d). 『도학원류찬언속』은 제1편상(箕子), 제1편하(崔致遠~鄭希良), 제2편상(金宏弼~金振宗), 제2편하(徐敬德~曹守元), 제3편상(李彥迪~李粹光), 제3편하(曹植~鄭仁弘), 제4편상(李滉~柳贊), 제4편하(李珥~李惟泰), 제5편상(張顯光~金聖鐸), 제5편하(許厚~李瀼) 등 전체 10개 편목으로 구성되었다.

29) 宋欽人, 『東方淵源錄』 「跋」(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17-81).

30) 金洛鉉, 『圃齋遺稿』 권4, 「溟東粹言序」.

31) 黃胤錫, 『頤齋續稿』 권7, 「記湖洛二學始末」.

32) 朴性陽, 『芸窓集』 권10, 「湖洛源流總目序」.

의 함경도 유학자들은 이후에도 면면히 배출되어 李元培, 玄翼洙, 林宗七 등이 출현하였다. 이재형과 이들을 합하여 세칭 北關四賢이라 칭하는데 이들을 기념하는 책자 『北關四賢行蹟』도 제작되었다.³⁴⁾ 아울러 金澤榮이 지은 『崧陽耆舊傳』(1896)과 이를 수정한 『重編韓代崧陽耆舊傳』(1920)의 경우 이 안에 설정된 「學行」 편은 徐敬德과 金憲基를 두 극점으로 하는 조선시대 개성 유학사라 이를 만하다.³⁵⁾

조선왕조의 멸망을 전후하여 호서 지방과 영남 지방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사 전통을 정리하는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宋秉璿의 『涇東淵源錄』과 河謙鎭의 『東儒學案』이 그것으로, 이 두 저술은 일찍부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국 유교사를 서술한 선구적인 유교사 저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³⁶⁾ 『패동연원록』은 鄭夢周에서 吳熙常까지 69인의 유학자를 34淵源으로³⁷⁾ 분류한 저술로 박세채의 『동유사우록』을 필삭한 위에 주로 湖洛 유학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사회의 쇠망에 직면한 고종대 호서산림의 '정학'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³⁸⁾ 『동유학안』은 薛聰부터 李光庭까지 151인의 유학자를 15學案으로³⁹⁾ 분류한 저술로 陶山(李滉), 德山(曹植), 寒旅(鄭述, 張顯光), 坪蒲(柳致明, 李震相) 등 영남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潭坡(李珥, 成渾), 湖洛 계열 등을 추가하는 방식

33) 吳尙奎, 『槐庭集』 권1, 「關北淵源錄」.

34) 『北關四賢行蹟』(국립중앙도서관 古3647-438).

35) 노관범, 2014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 『한국문화』 66.

36) 琴章泰, 1993 「韓國儒敎史研究의 現況과 方向」 『종교학연구』 12.

37) 「圃隱私淑」, 「佔畢齋門人」, 「寒暄堂門人」, 「靜菴門人」, 「慕齋門人」, 「寒暄堂私淑」, 「退溪門人」, 「栗谷從遊」, 「栗谷門人」, 「寒岡門人」, 「退溪私淑」, 「牛溪門人」, 「沙溪門人」, 「尤菴從遊」, 「愼獨齋門人」, 「尤菴門人」, 「玄石門人出入尤菴之門」, 「打愚淵源」, 「寒水齋門人」, 「陶菴從遊」, 「農巖門人」, 「農巖淵源」, 「同春淵源」, 「陶菴門人」, 「南塘門人」, 「退溪淵源」, 「貞菴門人」, 「雲坪門人」, 「丈巖私淑」, 「遊溪湖門」, 「止菴門人」, 「松巖私淑」, 「過齋門人」, 「遊近齋中洲門」 등의 총 34연원이다.

38) 盧官汎,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運動」 『한국사론』 38.

39) 「羅麗二代韓初諸儒學案」, 「理學淵源諸儒學案」, 「陶山學案」, 「陶山門下諸儒學案」, 「陶山私淑學案」, 「德山學案」, 「德山門下諸儒學案」, 「寒旅學案」, 「坪浦學案」, 「潭坡學案」, 「潭坡門人私淑學案」, 「湖洛學派學案」, 「經世諸儒學案」, 「守道諸儒學案」, 「清隱諸儒學案」 등의 총 15학안이다.

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문헌은 조선유학사에 대한 영남학파의 인식을 잘 읽을 수 있는 조선의 유일한 학안체 저술이다.⁴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학사 저술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림의 성장과 집권을 배경으로 조선전기 사림 도통을 상징하는 문헌 『국조유선록』이 제작되고 이것을 증보한 문헌 『해동유선록』과 『동방학문연원록』이 등장하는 초기 단계이다. 둘째, 붕당의 형성과 전개를 배경으로 각각의 붕당적 시각에서 조선시대 유학사를 정리하는 일련의 문헌들이 등장하는 중기 단계이다. 오희길의 『도동연원록』, 박세채의 『동유사우록』, 이세환의 『동유사우록속집』과 『동유사우록후속집』, 황덕길의 『도학원류찬언속』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특정 학파 내지 특정 지역의 유학사 저술들이 등장하는 후기 단계이다. 호락학파의 역사를 정리한 황윤석의 「기호락이학시말」, 박성양의 『호락원류총목』, 또는 함경도 유학사를 정리한 오상규의 「관북연원록」과 개성 유학사를 정리한 김택영의 『숭양기구전』 「학행」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조선왕조의 멸망을 전후하여 조선유학사를 정리하고자 집필된 저술들이 등장하는 말기 단계이다. 송병선의 『패동연원록』과 하겸진의 『동유학안』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문헌들은 한국의 유학 전통, 특히 조선시대 유학 전통에 관한 특정한 계보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 그것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⁴¹⁾ 그러나 그 계보적 지식을 곧바로 역사적 지식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선유교연원』에 한국의 유학 전통을 역사

40) 崔一凡, 2004 「『東儒學案』의 學派 分類에 관한 考察」 『儒敎思想研究』 21.

41) 전통적인 조선유학사 문헌들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 초기 단계의 『국조유선록』은 『조선유교연원』에 직접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중기 단계의 『도학원류찬언속』은 ‘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허훈-장지연’의 학맥 관계로 볼 때 장지연이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후기 단계의 호락학파 관련 저술이나 지방학계 관련 저술을 장지연이 직접 참조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조선유교연원』에서 호락학파의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개성 유학·관서 유학·관북 유학·호남 유학 등의 지방학계를 특기하고 있음을 볼 때 후기 단계 저술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말기 단계의 경우 장지연이 송병선의 『패동연원록』을 접했을 가능성은 미미해 보이며, 하겸진의 『동유학안』은 『조선유교연원』 이후 완성된 작품이니 영향 관계를 논단할 수는 없다.

로서 성찰하는 특정한 사관이 반영되었음과는 달리 이들 문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유학사 문헌들의 관심사는 주자학의 ‘聖賢道統’ 관념을 적용하여 자신이 속한 학파나 붕당, 또는 지역의 기준에 합당한 도통의 계보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조선유학사에 관한 지식이 계보적 지식의 수준을 넘어 역사적 지식의 수준으로 고양되기 위해서는 조선유학사를 독해하는 거시적인 사관이 요청되었다. 이 점에서 『조선유교연원』은 전통적인 조선유학사 문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근대 한국학 저작의 하나였다.

2) 한국유학사를 보는 사관들

앞에서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문헌들의 흐름을 검토하고 그 문헌들이 구축한 한국유학사 지식이 한국 유학 전통에 대한 역사적 지식보다는 계보적 지식에 가깝다고 논하였다. 이들 문헌들이 구축한 계보적 지식을 통하여 주자학적 도통관이 한국 유학 전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한국유학사 전체를 통시적으로 성찰하는 뚜렷한 역사관을 이들 문헌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를 거쳐 일제식민지시기에 이르는 근대전환기에는 특정한 역사관을 안고 한국유학사를 통관하는 소품들이 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들은 『조선유교연원』의 유학사관을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참조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말기 경화사족 출신 관료 沈琦澤이 지은 「我東道學源流敍」, 대한제국기 大東學會에서 활동한 申箕善이 지은 「道學源流」, 일제식민지시기 조선학을 고취한 지식인 安廓이 지은 「儒敎의 進化와 新儒」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심기택의 「아동도학원류서」(1884)는 조선 유학의 주요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고 조선말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 유학의 장래를 근심한 조선 유학사 서설이다. 이 글은 조선 유학사의 주요 국면을 여말(鄭夢周), 중종(趙光祖), 인종(李滉, 金麟厚), 명종(退溪門人, 영호남의 諸儒), 선조(李珣, 成渾, 栗谷門人), 인조 이후(宋時烈, 宋浚吉, 尤菴門人, 寒水門人, 農巖門人 등), 영조(湖洛宗主, 陶庵門人, 南塘門人, 屏溪門人 등), 정조(金亮行, 宋煥箕 등), 순조(吳熙常, 宋穉圭 등), 헌종(洪直弼, 李恒老 등)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국면에서 주요 유학자들의

행적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서인-노론의 시각에서 조선후기 유학사의 중심을 이이-송시열 학맥에 두되, 남인 유학과 소론 유학 같은 다른 봉당의 유학, 그리고 관서 유학과 관북 유학 같은 변방 지역의 유학에 대한 서술도 포함하였다.⁴²⁾ 이 글은 조선 성리학이 영조대까지 번창하다가 정조·순조를 거치면서 이후 쇠퇴한다고 보았는데, 그 원인을 정조대의 宋德相·金鍾厚·金正默, 순조대의 金日柱·鄭日煥 등의 정치적 몰락 또는 타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대부들이 유학을 멀리하고 점차 流俗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구했다. 무엇보다 문벌의 폐해 때문에 초야의 선비가 實學이 있어도 등용되지 못해 유학이 더욱 쇠퇴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조선 유교의 삼대 해악으로 異端, 士禍, 流俗을 꼽는 이 글은 정조대 이후 고종대까지 유속의 절망적인 확산으로 유교가 스스로 枯死하고 있다는 비관론에 도달하였다.⁴³⁾ 이 글은 정조·순조 이후 조선 유학 쇠망론이라는 뚜렷한 역사관을 창출한 문제적 작품이었다.

신기선의 「도학원류」(1908)는 종래 동아시아 도학의 역사적 실패를 천명하고 시대에 적합한 공맹 유학의 회복을 논한 글이다. 이 글은 도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준행해야 하는 人倫의 도와 利用厚生의 도로 보고 비록 도학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삼대에는 학교에서 도학을 가르쳤고 삼대의 제도가 붕괴된 공자의 시대에는 공자가 유교 경전을 집대성해 도학을 가르쳤다고 보았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漢儒의 훈고학이 오호십육국의 난세를 초래하였고 唐儒의 시문학이 오대십국의 난세를 초래하였으며 송대에는 程朱가 배출되어 이른바 道學을 창도했으나 그 도학이 口耳之學으로 형식화되고 도학의 내용도 明倫檢身에 치우치고 利用濟世에 미치지 못해 결국 民氣의 타락과 國綱의 해이, 그리고 元에 의한 천하의 '陸沈'이 뒤따랐다. 따라서 한유도, 당유도, 송유도 모두 도에 실패하였고 秦漢 이후 중국의 유학사는 한 마디로 실패의 역사였던 셈이다.⁴⁴⁾ 이 글은 중국

42) 남인 유학자로는 李玄逸, 丁時翰, 李瀛, 李象靖, 崔興遠, 鄭宗魯 등을, 소론 유학자로는 鄭齊斗, 梁得中, 李泰壽, 沈鎔, 尹東源, 尹東洙, 李喬年, 金載海, 成近默, 李亮淵 등을, 관서 유학자로는 鮮于浹, 田乃績, 康銖, 康遠, 黃順承 등을, 관북 유학자로는 崔愼, 韓世襄, 李載亨, 李元培, 林宗七 등을 소개하였다.

43) 沈琦澤, 『雲稼集』 권6, 「我東道學源流敍」(규장각 古 3428-396).

44) 申箕善, 「道學源流」 『大東學會月報』 1, 1908.2.

보다 송학이 융성한 조선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혹독한 실패를 겪었다고 보았다. 무오사화와 기묘사화는 모두 士林이 自取한 일이니 ‘戊午己卯諸儒’는 도에 실패하였고, 시대격변기에 국가 경영에 힘쓰지 않고 당쟁이나 일삼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했으니 ‘宣仁間諸儒’도 도에 실패하였으며, 丁丑下城 이후 實學과 經濟에 힘써 自修自強하여 국치를 갚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정계는 典禮와 建儲 문제로 혈전을 일삼고 학계는 人物性同異 문제와 西厓·鶴峯 우열 문제로 각각 ‘湖洛之戰’과 ‘屏虎之戰’을 일삼아 결국 ‘세계 最貧 最弱 最無氣 最無信’한 나라가 되었으니 ‘丙子以後數百年間諸儒’도 도에 실패하였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고 일본의 지배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잘못이며 대한제국 당대인이 책임질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었다.⁴⁵⁾ 이 글은 중국 역대 儒弊를 다시 개관하여 秦, 漢, 宋, 明의 ‘國亡’이 모두 유학자의 잘못 때문임을 확인하고 진정 明倫檢身과 利用濟世의 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孔孟 유학의 ‘직접적’ 연구를 제안하였다.⁴⁶⁾ 융희년간 친일 유림단체 大東學會의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이 글은 철저하게 유학 망국론 혹은 조선 유학 망국론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장한 문제작이었다.

안확의 「유교의 진화와 신유」(1932)는 진보의 시각에서 세계 유학사의 국면들을 통찰하고 新儒의 각성을 제안한 글이다. 이 글은 세계 유학사의 단락을 ‘古儒 [中國(孔子-程朱)-朝鮮(安子-退栗)]-新儒’의 구조에서⁴⁷⁾ 포착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락 변화, 이를테면 ‘공자에서 정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의 단락 변화를 모두 유교의 ‘진화’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곧 유교를 창설한 공자부터가 고대 天神思想을 물리치고 人道를 선포한 진보적인 실천가였거니와, 송대에 들어와 유교의 철학화가 촉진되어 인생의 목적을 太極의 체인과 氣質의 변화를 통한 성인됨의

45) 申箕善, 「道學源流」 『大東學會月報』 2, 1908.3.

46) 申箕善, 「道學源流」 『大東學會月報』 3, 1908.4.

47) 안확은 古儒에서 新儒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進化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도표로 표시하고 있다.

— (古儒) ————— 中國〈理論的〉— 孔子 — 程朱 ————— 朝鮮〈實際的〉—
安子 — 退栗 ————— 世界〈超越的〉— (新儒) —

실천에서 구하는 송학이 완성됨으로써 유교가 '진보완성'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중국의 유교이다. 그런데 중국의 유교는 '空理空論'으로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국가 전체적으로 실행된 일이 없었으나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교를 실제로 행하는 변화가 발생하였으니 이것이 조선의 유교이다. 고려후기 안자(安珦)가 '實際儒教'를 창도한 후 유도가 크게 진흥하여 불교를 물리치고 정치 혁명을 일으켜 '李朝五百年의 完全한 儒教國'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천하를 주유했던 공자의 志願이 달성된 획기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이 글은 그러나 유교가 세계에 확산되는 시대에 '古儒에서 新儒로'의 진보는 연속적 진보가 아닌 '초월적' 진보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압제주의·복고주의·사대주의 같은 재래의 구습을 대각성, 대개혁하고 새롭게 유교의 진리를 창명하여 신도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⁸⁾ 이 글은 거시적인 시야에서 유교의 진화를 통찰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 유학의 진보적인 성격을 부각한 문제작이었다.

이상 심기택, 신기선, 안학의 세 작품을 통해 근대전환기에 출현한 한국 유학사 인식들의 특징적인 내용을 일별하였다. 심기택의 정조·순조 이후 조선 유학 쇠망론, 신기선의 (조선) 유교 망국론, 안학의 (조선) 유교 진화론은 각각 한국 유학사를 통찰하는 서로 다른 사관이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것들이 장지연의 한국 유학사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연결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심기택의 글은 『조선유교연원』에서 직접 인용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장지연은 儒學으로 經濟之學을 겸한 조선 유학의 새로운 유파로 柳馨遠을 소개하기 앞서 심기택의 글을 인용하여 정조대 노론 유학자들 일부가 진정한 도학에서 멀어지면서 사대부들이 유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비판하였다.⁴⁹⁾ 심기택의 글이 중

48) 安廓, 「儒教의 進化와 新儒」, 『朝鮮』 178, 1932.8(權五聖·李泰鎮·崔元植 編, 1994 『白山安廓國學論著集 4』, 여강출판사, 163-175면).

49) 「朝鮮儒教淵源」, 『매일신보』 1917.8.24. “按沈雲稼道學源流說에 曰當時에 又有宋閑靜文欽、李雪川鳳祥、安可淵重觀、金秋潭偉材而或浮沈祿仕호며 或從事文章호야 成已成物에 全体大用之學은 鮮能이 久矣라 正廟在宥에 以君兼師호야 作成化育而宋德相、洪啓能、韓翼、洪量海는 有儒名而前後罪死호고 金本庵鍾厚는 以願留權奸으로 見棄清議호고 金果齋斗默은 以近出凶逆으로 坐削儒選호니 士大夫一恥以學問名호야 駸駸然入於流俗矣라”: 한편 심기택의 「아동도학원류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략) 同時又有宋

요한 참고 문헌으로 활용되었으며 정조·순조 이후 조선 유학 쇠망론이 수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놀랍게도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 「總論(上)」의 결미 부분에서 심기택의 글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16세기 조선 유학사를 서술한 데 이어,⁵⁰⁾ 심지어 『조선유교연원』을 끝맺음하는 「總論(下)」의 결미 부분에서까지 심기택의 글을 거의 표절하다시피 해서 논의를 끝마치는 인상적인 필력을 보였다.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自黨論이 分裂之後로는 東西色目이 互相撕捫호며 自相猜疑호야 公論之不行이 久矣은 沉挽近仕宦之家는 酣豢富貴호고 草野之人은 埋沒農圃호야 不復知學問之何事호니 世道之日下와 風俗之日壤 | 職此之故라 間或有才高質美之士라도 而不能自拔於流俗호고 避遠標榜호며 厭惡拘檢호야 歸於利欲窠臼中호니 其視君子之道에 不啻朔南之相去호니 繼往開來之學은 尙爾無論이오 獨善自修之士도 亦不可得見이라 嗟夫天豈欲喪斯文耶아 抑亦有無往不復之理耶아 盖我鮮之儒教 | 中葉以前은 斬伐於土禍之慘호고 中葉以後는 梏喪於朋黨之害호고 至于近世호야는 如自枯之木호며 無火之灰호야 消沮澌燼에 自底腐敗호니 嗚呼朝鮮之儒教 | 如斯已矣라 未知有恢復生旺之日耶아 (完)

- 張志淵, 「總論(下)」

盖學道者不見用於世, 則當講明斯道, 而淑諸人傳諸後, 而挽近以來, 仕宦之家酣豢富

閑靜文欽·李雪川鳳祥·安可洲重觀·金秋潭偉材, 而或浮沈祿仕, 或從事文章, 成已成物全體大用之學, 鮮能久矣. 正廟在宥, 以君兼師, 作成化育, 而宋德相·洪啓能·韓後翼·洪量海, 有儒名而前後罪死, 金本庵鍾厚, 以顧留權奸, 見棄清議, 金過齋斗默, 以近出凶逆, 坐削儒選, 士大夫恥以學問名, 駸駸然入於流俗 (후략).”

- 50) 「朝鮮儒教淵源」 『매일신보』 1917.12.8. “靜庵은 當中宗時호야 以格致誠正之學으로 有堯舜君民之志而金冲庵淨과 金老泉滉이 羽翼之호야 將不變風俗에 挽回世道러니 己卯之禍에 忠良并戮호야 士氣消沮호니 人以理學으로 爲諱라 仁廟嗣服에 黨禁始弛而晦齋李文元公은 修學於嶺南호고 河西金文靖公은 倡學於湖南호야 斯道 | 復明이라가 仁廟 | 遽崩호시고 明宗初元에 復有乙巳之禍호니 斯文之厄이 極矣라”: 한편 심기택의 「아동도학원류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략) 至中宗朝, 趙靜庵光祖, 以格致誠正之學, 堯舜君民之志, 而金冲庵淨·金老泉滉羽翼之, 將不變風俗, 挽回世道, 而已卯之禍, 忠賢駢戮, 士氣銷沮, 人以理學爲諱, 仁廟嗣服, 黨禁始弛, 而金河西麟厚倡學於湖南, 李退溪滉講道於嶺南, 河西明通灑落, 近於生知, 退溪沈潛篤實, 展也大成, 而又值乙巳大禍, 退藏邱壑, 功用不見 (후략).”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은 심기택의 「아동도학원류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차이가 있다면 인종 즉위 후의 유학자를 심기택이 영남의 이황과 호남의 김인후로 설정해 서술한 반면, 퇴계 도통론에 입각한 장지연은 이것을 영남의 이언적과 호남의 김인후로 설정을 바꾸어 서술해서 「총론(상)」을 마쳤고 「총론(중)」을 시작하면서 이황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여 이황을 조선유학계의 집대성이라 극찬했다는 것이다.

貴, 草野之人埋沒農圃, 不復知學問之爲何事, 世道之日下, 風俗之日壞, 職此之故, 間或有才高質美之士, 而不能自拔於流俗, 避遠標榜, 厭惡拘檢, 畢竟同歸於利欲窠臼中, 其視君子之道, 不啻朔南之相去, 繼往開來之學, 尙矣無論, 獨善自修之士, 亦不可得見, 嗚呼! 天豈欲喪斯文而然耶? 抑亦有無往不復之理耶? 蓋吾道之害有三, 曰異端也, 士禍也, 流俗也. 然譬諸養木, 異端之害若荊棘雜生, 拔去則斯已, 士禍之害如斧斤之斬伐, 雨露所潤猶有萌蘖. 至於流俗, 則其害也使木自枯, 自枯, 則雖欲萌蘖, 得乎? 觀乎今之世, 吾道不待邪說之害, 斬伐之禍, 而消沮漸燼, 無復有生旺之氣, 豈非自枯之木耶? 故曰: “流俗之害甚於異端士禍.” 然地底之陽, 無終絕之理, 而上天愛物之仁, 有枯木生華之神功, 吾且爲吾道俟之. 歲甲申孟春日, 雲稼子書於太華山中明剛丙舍.

- 沈琦澤, 「我東道學源流序」

위에서 보듯 심기택의 조선 유학 쇠망론의 핵심은 사환가는 부귀에 빠지고 재야인은 생업에 허덕여 갈수록 학문이 쇠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도의 악화와 풍속의 붕괴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선 유학이 고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의 결론에서 심기택의 이 논의를 그대로 옮겨와서 조선의 유교가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유교연원」을 최종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깊은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심기택의 글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끌어와 조선 유교가 끝났다고 말한 것은 신문 지면에 장기간 한국 유학사를 연재한 공인으로서 무책임하고 경박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역으로 장지연이 얼마나 심기택의 조선 유학 쇠망론에 동감했는지를 적시하는 장면이라 하겠다. 단, 조선 유학 쇠망의 본질적 원인으로 심기택이 '유속'을 부각했다면 장지연은 '붕당'을 중시했다는 차이가 있다.⁵¹⁾

심기택의 조선 유학 쇠망론이 『조선유교연원』에 직접적으로 수용되고 있음과 달리 신기선의 (조선) 유교 망국론과 안확의 (조선) 유교 진화론이 『조선유교연원』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장지연은 조선 유학에 대하여 신기선처럼 전적으로 유교 망국론의 관점을 취하지도 않았고 안확처럼 전적으로 유교 진화론의 관점을 취하지도 않았다. 안확은 중국 유학과 조선 유학의 차이를 이론과 실제에서 구하고 중국 유교에서 조선 유교로의

51) 장지연은 다른 글에서 조선 유교가 쇠퇴한 이유를 '당론의 발생과 도학의 부패'에서 구한 바 있다(「朝鮮儒敎의 源流」 『매일신보』 1915.2.9).

‘진화’를 이론에서 실제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읽었다. 장지연 역시 실제를 중시하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정주학이 공맹의 유학을 부활시킨 ‘實際性理之學’ 또는 ‘實際有用之學’이었다고 긍정하였으며⁵²⁾ 조선의 송학은 유학자들이 實踐과 實見을 보인 中宗·宣祖 때에 극성기를 맞이했으니⁵³⁾ 당론이 분열된 후 도덕이 쇠퇴하여 今世에는 實地踐履의 학문이 모두 사라졌다고 인식하였다.⁵⁴⁾ 따라서 장지연은 안화와 마찬가지로 조선 유학의 실천성을 긍정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근대적인 진화론보다는 전통적인 도통론에서 발출하고 있었으며 또한 조선 유학의 실천성을 당론 분열 이전 시기로 국한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안화와 같지 않았다. 한편 장지연은 신기선의 유학 망국론, 특히 조선시대 유학 망국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⁵⁵⁾ 그는 조선시대 유교의 극성기에 요순정치가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국세가 쇠미하여 망국에 이른 것은 유교의 죄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조선의 善治를 좌절시킨 붕당의 해악은 유교가 아니라 정치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나 그는 붕당의 해악에 비례하여 조선 유학이 쇠망해 갔고 그 결과 근세에 수준 미달의 僞儒가 확산되었다는 비판론에 도달해 있었다.⁵⁷⁾

이로 보건대 장지연의 조선유학사 인식은 조선 전기의 이상적인 조선 유학(‘實際’), 조선 후기의 역사적인 조선 유학(‘朋黨’), 조선 말기의 절망적인 조선 유학(‘僞儒’)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화의 조선 유교 진화론, 신기선의 조선 유교 망국론, 심

52) 張志淵, 『韋庵文稿』 권5, 「辨高橋亨講演」.

53) 『매일신보』 1915.2.9, 「朝鮮儒敎의 源流」(『張志淵全書 8』, 51면).

54) 『매일신보』 1915.2.6, 「朝鮮儒敎의 源流」(『張志淵全書 8』, 50면).

55) 신기선의 「도학원류」를 실은 『대동학회월보』 제2호(1908.3)가 나간 후 신기선과 「도학원류」는 한국 민족 언론으로부터 동시적인 비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로부터는 신기선이 일본의 삼대 충노라는 비판을 받았고 『황성신문』으로부터 국망에 대한 당대인의 책임을 조선후기 유학에 전가시킨 부당한 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日本の 三大忠奴」 『대한매일신보』 1908.4.2; 「道學源流辨」 『황성신문』 1908.4.4). 1909년 박은식과 함께 大同敎를 결성해 신기선의 大東學會에 대항했던 장지연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 결코 신기선의 유교 망국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56) 張志淵, 『韋庵文稿』 권5, 「儒敎辨」.

57) 「朝鮮儒敎의 源流」 『매일신보』 1915.2.9(『張志淵全書 8』, 51면).

기택의 정조·순조 이후 조선 유학 쇠망론과 대비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심기택의 역사관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결론에 그대로 차용되었음이 주목된다.

3. 『조선유교연원』의 한국유학사 지식

1) 『조선유교연원』의 목차 구조

지금까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배경적 이해를 위해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문헌들, 그리고 한국유학사를 보는 사관들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조선유교연원』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여기에 담긴 한국유학사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장지연 사후 간행된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이 아니라 1917년 『매일신보』 지면으로 전달된 연재물 「조선유교연원」임을 밝혀 둔다. 연재물 「조선유교연원」은 연재된 날짜별로 텍스트의 구성 양상을 볼 수 있고 각각의 연재 기사 내의 질서와 연재 기사 간의 질서를 통찰함으로써 장지연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작품을 기획하고 서술했는지 그 주제의식을 규명할 수 있다. 비록 장지연 본인은 자신의 작품에 특정한 목차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질서를 독해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주제의식을 특정한 목차로 복원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산만한 인물 유학사로 보이는 『조선유교연원』을 근대적인 학술 저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힘이 여기에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1917년 4월 5일부터 1917년 12월 11일까지 『매일신보』 지면에서 ‘조선유교연원’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된 총 125회의 글들을 차례로 도표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조선시대 이전 유학사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1	1917.4.5.	古代 儒學 三國 儒學	箕子 孔子 任首 帝文 守眞 良圖 風訓 骨香	爾雅 通典 易 論語	洪範 儒教祖宗 經學中興
2	1917.4.6.	新羅 儒學 高麗 儒學	薛聰 金守忠 任成老 崔沖	三國史	儒學之興 文教大興 九齋
3	1917.4.7.	高麗 儒學	崔沖 安裕	麗史	私塾學校之興 高麗一代 經學之興
4	1917.4.8.	"	安裕 白頤正 禹倬 辛葦 權溥 李齊賢	麗史	程朱學始起 易理之學 朱 子集註

〈표 2〉 이항 이전 조선 유학사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5	1917.4.10.	圃隱 學脈	鄭夢周 吉再 金叔滋 權近 金宗直	麗史	麗朝儒學之源流 東方理 學之祖 宋儒程朱之學 圃 隱以後理學之嫡派
6	1917.4.11.	"	金宗直	東閣雜記 明齋集 谿谷漫筆 退溪言行錄 秋江 退溪	朝鮮儒學界士禍
7	1917.4.12.	國朝四賢	金宏弼	高峯所撰行狀 南溟師 友錄 高峯 退溪	
8	1917.4.13.	"	鄭汝昌	謏聞瑣錄 師友名行錄 南溟 秋江 丙丁錄	
9	1917.4.14.	"	趙光祖	退溪 栗谷 儒先錄	
10	1917.4.17.	"	趙光祖	石潭日記(栗谷) 深谷 書院講堂記(尤庵) 星湖僊說 己卯錄 稗官雜記 石潭日記	
11	1917.4.18.	己卯士林 寒喧 門人	金淨 金湜 金安國	退溪 牛溪 沙溪語錄 退溪集 月汀漫錄 澤 堂 識小錄	
12	1917.4.19.	寒喧 門人 靜菴 門人	鄭鵬 朴英 成守琛 趙 昱 奇遵	栗谷	
13	1917.4.20.	國朝四賢	李彥迪	退溪 高峯 南溟 石潭 日記 西崖 白沙	

<표 3> 이항과 사단칠정론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14	1917.4.21.	李滉	李滉	石潭日記	
15	1917.4.25.	"	李滉	經筵日記 栗谷 澤堂 論思錄 柳文節日記 安順菴隨筆	
16	1917.4.26.	四端七情	李滉	退溪天命圖說後敘	
17	1917.4.27.	"	李滉, 奇大升	奇高峯非四端七情分理氣辨 退溪答奇明彥書	
18	1917.4.28.	"	李滉, 奇大升	退溪答奇明彥書	
19	1917.4.29.	"	李滉, 奇大升	"	
20	1917.5.1.	"	李滉, 奇大升	四端七情後說 總論 退溪	
21	1917.5.2.	"	成渾	成牛溪四七理氣問書	
22	1917.5.3	"	李珥	栗谷答成牛溪四七理氣辨	
23	1917.5.4.	"	李珥	"	
24	1917.5.5.	"	李珥	"	
25	1917.5.7.	"	李珥	栗谷聖學輯要心性情說	
26	1917.5.8.	"	李滉	李星湖四七理氣說	
27	1917.5.9.	"	李滉	"	
28	1917.5.10.	"	李滉	星湖辨說	

<표 4> 이항 이외의 주요 명현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29	1917.5.11.	退溪同時儒宗	曹植	退溪集 漢山錄 石潭日記 李澤堂	
30	1917.5.13.	"	徐敬德	李澤堂 栗谷	
31	1917.5.16	"	李恒 奇大升	柳文節日記 奇高峯論事錄 退溪答奇明彥書 栗谷石潭日記 退溪	
32	1917.5.17	"	金麟厚 (金德秀 柳希春 鄭之雲 李仲虎 盧守愼)	退溪答奇明彥書 牛山祿錄 金沙溪語錄 申象村集 宋尤庵集神道碑	
33	1917.5.19.	李珥	李珥	李白沙集神道碑 退溪集答叔獻書 月沙集謚狀	
34	1917.5.22.	"	李珥	牛溪語錄 白沙撰神道碑銘	
35	1917.5.24.	成渾	成渾	尹魯西祿著 宋尤庵 浦渚 趙翼上疏	

〈표 5〉 학파의 성립과 전개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36	1917.5.25.	退溪門人	鄭述 趙穆	牛溪日記 退溪書 涪溪紀聞	
37	1917.5.29	南溟門人	吳健 崔永慶	石潭日記 牛溪與松江書	
38	1917.5.31.	退溪門人	黃俊良 南致利 權好文	退溪 鶴峯	
39	1917.6.1.	南溟門人 花潭門人	金宇顥 閔純 李之茵	石潭日記	
40	1917.6.2.	退溪學脈	張顯光	趙澗松任道就正錄 政院日記 正廟親撰祭文 許眉叟祭文 金敬窩佗作畫像贊 鄭愚伏 宋尤庵答沈德升	
41	1917.6.5.	"	鄭經世	李蒼石堧 趙龍洲集神道碑 宋同春集行狀 宋尤庵集答鄭晏叔書	
42	1917.6.6.	栗牛門人	金長生		
43	1917.6.7.	"	趙憲	尤庵集行狀 栗谷 權石洲 休窩雜纂	
44	1917.6.13.	"	鄭曄 安邦俊 申應矩 姜沆	月沙集碑 明齋集	
45	1917.6.14.	"	金集	尤庵集神道碑	
46	1917.6.15.	花潭門人	徐起 朴枝華	白沙 眉叟 朴守庵 澤堂 牛溪續集 眉叟記言	

〈표 1〉에서 〈표 5〉까지는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의 권1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장지연은 성호학맥의 시각에서 기자와 이황을 존숭하여 기자의 시작과 이황의 완성으로 구성되는 이상적인 조선 유학사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크게 조선시대 이전 유학사, 이황 이전 조선 유학사, 이황과 사단칠정론, 이황 이외의 주요 명현, 학파의 성립과 전개 등 5개의 주제로 구분된다.

먼저 〈표 1〉에서 그는 箕子부터 李齊賢까지 고전 유학, 삼국 유학, 신라 유학, 고려 유학을 서술하였다. 『이아』를 인용하여 동방 사람의 仁을 첫머리에 부각하였고 이어서 기자의 흥범이 '儒敎의 宗祖'이며 따라서 기자의 도가 밝혀진 조선이 '유교종조의 나라'임을 자부하였다. 삼국 유학에서 고려 유학까지 각각 '經學中興'(삼국의 자제들), '儒學之興'(설총), '我東私塾學校之興'(최충), '儒學中興'(안유), '程朱學始起'(백이정), '易理之學'(우탁), 朱子集註 간행(권부) 등 조선유학

사의 신기원이 되는 사건들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표 2>에서 그는 정몽주에서 이언적까지 이황 이전의 조선전기 유학사를 서술하였다. <표 1>에서 소개된 ‘안유-우탁-이제현-이색-권근·변계량’의 계보를 ‘麗朝儒學之源流’라 명명하고, 정몽주는 이러한 고려유학의 계보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吾東理學之宗祖’라 추앙하였다. 조선의 정주학이 실제로 정몽주에서 시작한다는 의식이었다. 정몽주 이후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의 계보를 ‘圃隱以後 理學의 嫡傳相承’이라 명명하고 이 계보에 입각하여 조선전기 유학사를 서술하였다. 조광조에 대한 서술에 이어 차례로 조광조와 운명을 함께한 기묘사림, 김굉필의 문인들과 조광조의 문인들, 그리고 이언적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그가 선조대 간행된 『國朝儒先錄』의 國朝四賢의 도통, 곧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의 계보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정몽주에서 김종직까지의 영남사림 도통과 김굉필에서 이언적까지의 국조사현 도통을 조선유학사 서술의 기본 구도로 설정한 것이다.

<표 3>은 『조선유교연원』 권1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으로 이황과 사단칠정론에 관한 서술이다. 그가 이언적에 이어 곧장 이황을 서술한 것은 광해군대 문묘에 종사된 동방오현 관념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⁸⁾ 그는 공맹정주의 도를 동방에 환히 빛낸 사람이 오직 이황이라고 기술할 정도로 이황을 존숭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토록 존숭한 이황의 출처와 학문에 대한 후인의 논평을 선별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인물이 李珥, 李植, 奇大升, 柳成龍, 李瀾, 安鼎福으로 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이황의 문인 중에서 趙穆과 金誠一을 내치고 유성룡의 입을 빌려 이황이 ‘吾東圃隱後一人’임을 제시한 것.⁵⁹⁾ 이황에 대한 인물 비평의 대미를 그가 속한 성호학맥의 안정복의 언설로 장식한 것은 상당히 문제적으로 보인다. 이 점은 사단칠정론의 경우에도

58) 장지연은 ‘金安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을 ‘儒賢界의 第一回 文廟從祀之五賢’이라고 표장한 바 있다(『朝鮮의 儒教源流』 『매일신보』 1915.2.4).

59) 『조선유교연원』의 이황 비평 언설에서 조목과 김성일이 인용되지 않고 유성룡이 인용된 것은 『퇴계집』 편간을 둘러싼 조목 계열과 유성룡 계열의 대립, 19세기 김성일 계열과 유성룡 계열의 병호시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장지연은 퇴계 후학들의 이와 같은 대립과 시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유성룡 계열을 지지한 것이다.

동일하다. 그는 李滉, 奇大升, 成渾, 李珥, 그리고 李穡의 논설로 사단칠정론의 대강을 구성하였는데, 학술사적 시각에서 성호학맥의 사단칠정론의 독특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이황의 진정한 학문적 계승자가 이이이라는 성호학맥의 관점이 강하게 투과된 가운데 정작 이황 이후 영남 유학자들이나 이이 이후 기호 유학자들의 사단칠정론은 논외로 취급된 것이다.

이황 이외의 명현들은 <표 4>에서 서술되었다. 이황과 동시에 曹植, 徐敬德, 李恒, 金麟厚가 성리학을 연마하여 儒宗이 되었다는 인식으로 먼저 이들의 학문이 소개되었고, 다시 '退栗以來 淵源系統의 來歷'을 서술하여 조선유학계의 전체상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들에 이어 이이와 성혼이 소개되었다. 이황, 조식, 서경덕, 이이, 성혼 등이 이후 조선에서 형성되는 학파의 개조가 되는 인물이니 <표 4>의 구성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러나 구성 방식과는 별도로 서술 방식을 보면 이황 이외의 명현들을 이황과 차등하고자 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즉 조선 유학을 집대성한 이황 이후 더 이상 이황과 같은 순정한 주자학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발상이다. 조식이 老莊보다 심한 '曠蕩玄邈'에 빠진 유학자였다는 이황의 비평, 서경덕이 異術을 부렸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異學에 가까운 유학자였다는 이식의 비평, 이황은 무인으로 지내다 만년에야 학문을 알았다는 기대승의 비평, 기대승은 답론으로 좌중을 압도하기 잘하는 '好勝之病'이 있는 유학자였다는 이이의 비평, 김인후는 초년에는 老莊에 중년에는 詩酒에 빠졌다가 만년에야 주자학에 돌아왔다는 이황의 비평 등 이들의 불완전함을 전달하는 인물 비평이 곳곳에서 산견된다. 이이의 경우 십만양명설이나 동서분당의 보합 이외에는 禪學 관련 내용이 서술되는 정도이고 성혼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선조에게 奔問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더불어 성혼이 아직 학덕이 완성되지 않아 경계를 맡길 수 없다는 이이의 평가가 서술되는 정도이다. 이이와 성혼의 주자학 내용이 무엇이고 저술이 무엇인지조차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황은 완전한 주자학자였지만 이황 이외의 동시기 학자들은 불완전한 주자학자였고, 이이와 성혼의 주자학에서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조차 없었다는 식의 태도에서 과연 학문적 객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표 5>는 퇴계문인, 남명문인, 화담문인, 율우문인 등의 범주를 통해 조선시대

학과의 성립과 전개를 서술하였다. 퇴계문인을 꼽을 때 鄭述를 첫째로 조목을 둘째로 매기는 것은 『도학원류찬언속』에서 보듯 성호학맥의 전통적 관점의 계승이지만 정구는 박학과 다작을 극찬하고 趙穆은 ‘强戾暴悍’과 ‘太執不通’을 부각한 것은 지나친 문호의식이다. 퇴계문인으로 柳成龍과 金誠一을 모두 누락시킨 것은 병호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회피로 보이지만 대신 張顯光과 鄭經世를 퇴계학맥의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성룡에 친화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남명문인 鄭仁弘을 서술에서 제외한 것은 광해군대 집권 복인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식으로 보이며, 율곡문인 金長生, 趙憲, 金集을 장현광과 정경세처럼 신문의 하루 기사 전체를 할애하여 자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선의 문묘에 종사된 유현임을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徐起와 朴枝華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이들이 賤人 또는 庶人 출신으로 명산에 은거하여 氣數學을 수련했던 것을 정주학 중심의 조선의 일반적인 유학 전통과 대비되는 화담학파의 이색적 성격으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상 <표 1>부터 <표 5>까지 해당하는 주요 내용에 현대적인 목차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에서 보듯 제1부의 한국 유학사는 이황을 중심으로 이념화된 유학사, 전통적인 도통론에 의해 계보화된 유학사에 머물러 있고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근대 역사 지식으로서의 성격은 아직 미약하다.

제1부

1. 조선시대 이전 유학사 (1917/4/5~8)
 - 1) 고대 유학사
 - 2) 고려 유학사
2. 李滉 이전 조선 유학사 (1917/4/10~20)
 - 1) 嶺南士林의 도통
 - 2) 國朝儒先의 계보
3. 李滉과 四端七情論 (1917/4/21~5/10)
 - 1) 李滉의 학문과 세평
 - 2) 四端七情論의 전개
4. 李滉 이외의 주요 명현 (1917/5/11~5/24)
 - 1) 曹植과 徐敬德
 - 2) 李恒과 金麟厚

3) 李珥와 成渾
5. 학파의 성립 (1917/5/25~6/15)
1) 退溪學派의 학인들
2) 南溟學派의 학인들
3) 栗牛學派의 학인들
4) 花潭學派의 학인들

〈표 6〉 조선의 학술 풍토와 양명학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47	1917.6.29.		朝鮮儒教淵源 중간 정리		
48	1917.7.4.	陽明學	王陽明傳習錄辨(上)		
49	1917.7.5.	"	王陽明傳習錄辨(上)		
50	1917.7.6.	"	谿谷漫筆의 학술관 星湖 僣說의 이단관	張谿谷漫筆 李星湖僣說	
51	1917.7.7.	"	鄭齊斗	星湖	

〈표 7〉 당쟁과 조선 유학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52	1917.7.8.	許穆 宋時烈	寒岡門人 沙溪門人 愼齋門 人 旅軒門人 許穆 宋時烈 宋浚吉		
53	1917.7.10.	西人儒學 南人儒學	尹宣舉 李惟泰 俞榮 許厚 趙任道 申悅道 金應祖 李厚 慶 趙翼		
54	1917.7.11.	尹鑑	尹鑑	南夢巖 宋尤庵答券思誠書	
55	1917.7.12.	"	尹鑑의 大學, 中庸 문자	大學解說 中庸序說	
56	1917.7.13.	"	尹鑑의 大學, 中庸 문자		
57	1917.7.14.	西人儒學 南人儒學	權認 朴世堂 朴世采 丁時翰	尹明齋與李草廬書	
58	1917.7.15.	李玄逸	李玄逸	權荷塘斗寅撰行狀	
59	1917.7.17.	尹拯	尹拯		懷尼之爭 老少之論

<표 8>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열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60	1917.7.18.	尤菴門人	權尙夏 金昌協 李箕洪 李喜朝 鄭澐		尤庵之學
61	1917.7.20.	韓元震	玄石門人 農巖門人 江門八學 韓元震		湖洛之論
62	1917.7.21.	湖洛學派	湖洛學派分裂	臺山金邁淳闕餘散筆 朱子答徐元聘書	
63	1917.7.22.	"	李柬		
64	1917.7.24.	"	李緯 尹鳳九의 心說	尹屏溪心說問 陶庵答 屏溪問	
65	1917.7.25.	"	尹鳳九의 心說 李緯의 답변	屏溪曰 陶庵答	
66	1917.7.26.	"	尹鳳九 및 尹鳳九의 학설	答洪章海書	
67	1917.7.27.	"	尹鳳九의 학설	答伯剛書	
68	1917.7.28.	"	尹鳳九의 学설	答伯剛書	
69	1917.8.4.	"	近代의 湖洛 비판	華西李恒老	
70	1917.8.5.	"	韓元震 宋明欽 金元行 兪肅基 閔遇洙 李陶庵門人 韓南塘門 人 尹屏溪門人		
71	1917.8.8.	湖洛學派 明齋門人	蔡之洪 江門八士 鄭萬陽 鄭葵 陽 李光庭		

<표 9> 이익의 학문과 학맥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72	1917.8.9.	李漢	李漢	蔡樊巖濟恭	
73	1917.8.10.	"	李漢, 「洪範說」	星湖所著洪範說	
74	1917.8.11.	"	李漢, 「後天祖河圖說」	後天祖河圖說	
75	1917.8.21.	嶺南儒學	李象靖 李光靖 崔興遠 朴遜慶	安順菴椽軒隨筆	
76	1917.8.22.	星湖門人	安鼎福 愼後聃		
77	1917.8.23.	老論儒學	金亮行 宋煥箕 宋能相 金履 安 朴胤源 沈定鎮 宋釋圭 李瑀		
78	1917.8.24.	嶺南儒學 星湖學派	柳道源 鄭宗魯 南漢朝 南景 羲 黃德吉 黃德壹	沈雲稼道學源流說	

〈표 10〉 조선후기 經濟之學

#	매일신보	주제	주요 인물	출전	키워드
79	1917.8.25.	儒學經濟	柳馨遠		以儒學兼經濟之學
80	1917.8.26.	"	柳馨遠	吳藥山集 洪啓禧作傳	
81	1917.8.28.	"	丁若鏞		
82	1917.8.29.	"	朴趾源		
83	1917.8.30.	儒學經濟 開城儒學	洪大容 李德懋 吳熙常 趙有善 金憲基		漢儒學術

〈표 6〉에서 〈표 10〉까지는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의 권2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장지연은 조선후기 유교계가 주자학 독존과 당파의 정쟁으로 굴절된 가운데 퇴계적파와 율곡적파가 추구한 주자학 및 새롭게 부상한 경제지학으로 구성된 조선 유학사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크게 조선의 학술 풍토와 양명학, 당쟁과 조선 유학,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열, 이익의 학문과 학맥, 유학과 경제지학의 견비 등 5개의 주제로 구분된다.

〈표 6〉은 주자학 독존의 학술 풍토와 양명학의 좌절에 대해 서술하였다. 중국 유학은 명대 중엽 이후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대세가 바뀌었지만 조선 유학은 정몽주 이래 줄곧 주자학을 독존하여 명종·선조 연간 주자학의 극성을 목도하였고 중간에 徐敬德·盧思愼·李恒 등의 '獨立之學'도 모두 이황의 배척을 받아 결국 이황이 확립한 주자학 전통이 이후 이이, 성혼, 정구, 장현광, 김장생, 김집 등에 의해 계속되었음을 주장하였다.⁶⁰⁾ 이어서 조선시대 양명학의 좌절을 보여 주고자 이황의 「傳習錄論辨」, 장유의 「谿谷漫筆」, 이익의 「儒門禁網」(『星湖僊說』所收) 등을 차례로 소개하였는데, 장유와 이익의 언설은 양명학에 관한 논평이 아니라 단지 조선 유학에 다양성과 관용성이 부족하다는 조선의 학술 풍토에 대

60) 「朝鮮儒教淵源」 『매일신보』 1917.6.29. 이 글은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장지연의 조선유학사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글이다. 장지연은 조식의 도는 김우옹, 오건 이후 단절되었다고 인식하였고 서경덕의 도는 사실상 조선 유학 전통에 포함해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퇴계학과 율곡학과, 그 중에서도 정구-장현광 중심의 퇴계학과와 김장생-김집 중심의 율곡학과를 조선유학사의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한 비판이었다. 정제두에 대해서는 孝悌를 篤行하여 사람들이 양모하였다는 서술에서 그칠 뿐 정제두의 양명학 내용과 세칭 강화학파의 전개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⁶¹⁾ 이로 보아 <표 6>의 실질적 관심은 조선 양명학 그 자체에 놓였다고 보다 양명학을 용인하지 않는 조선의 주자학 풍토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황성신문』에서 한국 유림을 대상으로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도 일본의 양명학에 대한 관심을 간간이 표출하였음을 볼 때,⁶²⁾ 다분히 양명학에 대한 근대적인 시선으로 조선 후기 양명학의不在를 돌아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에서 서설적으로 제기한 주자학 독존의 학술 풍토는 <표 7>에서 말하는 조선 유학의 당쟁적 양상과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룬다. <표 7>은 조선후기 주자학의 기본 구도를 ‘이황-정구-허목’의 ‘퇴계적파’와 ‘이이-김장생-송시열·송준길’의 ‘율곡적파’로 상정하였다.⁶³⁾ 그러나 적파라고 추킨 허목, 송시열, 송준길, 그리고 그 밖의 여러 畿湖 주자학자들은 간략히 나열하고 넘어간 반면 주로 윤희, 이현일, 윤증 등에 지면을 할애하였다. 윤희에 대해서는 『대학』·『중용』에 관한 여러 신설을 소개하되 『書』 「舜典」을 위작으로 보는 해석이나 己亥禮訟 당시 斬衰三年服의 예론은 허목의 비판적인 언설을 첨부하였다. 이현일과 윤증에 대해서는 각각 이현일이 기사남인의 명의죄인이 아니라는 점과 송시열과 윤증의 회니시비 이후 주자학이 당쟁의 癩弊에 빠져들었다는 점에 서술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허목과 송시열·송준길 등에 대해서는 정작 당쟁 관련 기술을 회피하고 대신 윤희, 이현일, 윤증 등을 중심으로 당쟁 관련 기술을 진행한 결과 현종·숙종 연간의 예송과 환국에 관계된 조선 주자학의 역사상을 정합적으로 전

61)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이 연재되기 직전 『매일신보』에는 양명학을 논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제두는 저술이 없고 篤行만 있었다고 한다. 장지연 역시 이 기사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論陽明學」, 『매일신보』 1917.2.15).

62) 「舊學改良의 意見」, 『황성신문』 1909.1.30; 「論陽明學」, 『매일신보』 1917.2.15·20; 「陽明學說」, 『매일신보』 1917.7.17. 『매일신보』는 일본 동경의 陽明學會가 성황인데 國民學問에 이익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고, 일본 동경에서 온 신간 『陽明學月報』에 실린 「儒釋合一說」(大野雲潭 撰, 三島中洲 批點)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63) ‘율곡적파’ 내부에도 송시열은 이황의 성리설을 ‘大誤’라 비판한 반면 송준길은 이황을 충신토록 ‘師法’으로 삼았다고 하여 양자를 크게 대비하였다.

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표 8〉과 〈표 9〉는 각각 송시열 학맥과 이익 학맥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주자학의 양대 흐름을 대별한 것이다.⁶⁴⁾ 〈표 7〉에서 ‘이황-정구-허목’의 ‘퇴계적파’와 ‘이이-김장생-송시열·송준길’의 ‘율곡적파’가 제시되었음은 이미 전술하였거니와, 〈표 9〉에서 蔡濟恭을 인용하여 ‘이황(我東夫子)→정구→허목→이익(眉叟私淑)’의 관계가 명시됨으로써 〈표 8〉과 〈표 9〉의 구도가 ‘율곡적파’로서의 송시열 학맥과 ‘퇴계적파’로서의 이익 학맥의 대비에서 나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 7〉 ‘당쟁과 조선유학’에 이어 〈표 8〉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열’을 설정한 반면 〈표 10〉 ‘조선후기 경제지학’에 앞서 〈표 9〉 ‘이익의 학문과 학맥’을 배치함으로써 송시열 학맥은 조선후기 당쟁의 맥락에서 이해되도록 하고 이익 학맥은 조선후기 실학의 맥락에서 이해되도록 전체적인 구도를 설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도를 다시 음미한다면 〈표 6〉에서 조선후기 주자학의 부정적인 학술 풍토가 서설적으로 제시된 후, 〈표 7〉과 〈표 8〉에서는 조선후기 당쟁과 송시열 학맥의 주자학이, 〈표 9〉와 〈표 10〉에서는 이익 학맥의 주자학과 조선후기 실학이 순차적으로 제시된 셈이라,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유학사의 큰 그림을 ‘조선후기 주자학의 부정적 에토스, 그리고 율곡적파의 보수적인 주자학과 퇴계적파의 진보적인 실학의 대비’라는 기본 구도로 집약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송시열 학맥의 주자학에 대해서는 명칭조차 ‘호락분열’로 규정하여 조선전기 순수 학술 논쟁으로서 사단칠정 논변과 차원이 다른 조선후기 당쟁으로서의 성격을 각인한 반면, 이익의 학문에 대해서는 이황의 유학에 대한 존모, ‘舊制改革’의 치열한 경세 정신, 그리고 자연학과 인간학을 모두 아우르는 박학의 학문범위를 강조하여 조선후기 유학사에도 장지연이 말한바 ‘實際有用之學’으로서 본연의 주자학이 존재

64) 〈표 9〉의 경우 #72부터 #78까지 7개의 연재물 중에서 #75와 #77은 각각 영남유학과 노론유학에 대한 서술이라 7개 연재물 전체가 이익의 학문과 학맥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연재의 흐름으로 보면 ‘이익(#72,73,74)-영남유학(#75)-이익의 학맥(#76)-노론유학(#77)-영남유학·이익의 학맥(#7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상의 중점은 이익의 학문과 학맥에 놓여 있으며, 그 사이 사이 스케치하듯 영남 유학자들과 노론 유학자들을 간단히 나열하여 이익의 동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9〉를 ‘이익의 학문과 학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했음을 명시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표 10〉에서 장지연은 오늘날 이른바 실학자라 지칭되는 柳馨遠, 丁若鏞, 朴趾源, 洪大容, 李德懋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이들이 유학으로 ‘經濟之學’ 또는 ‘經濟考據之學’을 겸했다고 평하고 ‘漢儒 學術’이라 불렀다. 그가 말한 ‘한유 학술’이 경학사적 맥락에서 청대 乾嘉年間の 漢宋之爭을 의식해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조선후기 경제지학의 실천적 성격을 특별히 표창하고자 하는 의도는 간취된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경제지학을 성취했는지를 실제 내용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유형원과 정약용의 많은 저술들을 나열하고 다방면에 걸친 박학을 칭찬했음에도 정작 대표작 『반계수록』이나 『목민심서』의 학술적 가치를 경제지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박지원과 홍대용의 경우 ‘태서 지구설’을 수용하여 지전설을 세웠다는 간단한 서술은 있지만 이들의 주요 저술이 무엇이며 이들의 북학사상이 무엇인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는 조선후기 ‘경제지학’에 대한 소개를 이덕무로 마친 후 이 유형에 들어맞는 다른 유학자를 발굴함이 없이 맥락에 맞지 않게 吳熙常, 趙有善, 金憲基를 소개하였다. 조유선과 김헌기는 조선후기 개성 지역의 최고 유학자인 바, 그는 〈표 10〉의 결미를 개성 유학으로 장식함으로써 〈표 11〉 이후 서술할 조선 유학사의 방향, 곧 지방학계의 성장을 암시하였다.

이상 〈표 6〉부터 〈표 10〉까지 해당하는 주요 내용에 현대적인 목차를 부여하면 아래와 같다. 목차에서 보듯 제2부의 한국유학사는 율곡적파(송시열, 당쟁, 호락분열) 대 퇴계적파(이익, 박학, 경제지학)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조선의 학술 풍토→당쟁과 조선유학→송시열 학맥의 호락분열→이익의 학문과 학맥→조선후기 경제지학’이라는 논리적인 구성을 취하였다. 이 체계의 외적 적합성과 내적 정합성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현대적인 유학사 구성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대 역사 지식으로서 한국유학사의 선구적인 지식 체계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부
6. 조선의 학술 풍토와 陽明學 (1917/6/29~7/7)
1) 주자학 독존의 조선 유학
2) 陽明學의 좌절
7. 당쟁과 조선 유학 (1917/7/8~7/17)
1) 許穆과 宋時烈
2) 尹鏞의 경학
3) 李玄逸과 己巳南人
4) 尹拯과 老少分岐
8. 宋時烈 학맥의 湖洛分裂 (1917/7/18~8/8)
1) 宋時烈의 문인들
2) 湖學과 洛學의 대립
3) 湖洛學派의 학인들
9. 李灑의 학문과 학맥 (1917/8/9~8/24)
1) 이익의 경학
2) 이익의 문인들
3) 동시기 유학자들
10. 조선후기 經濟之學 (1917/8/25~8/30)
1) 柳馨遠
2) 丁若鏞
3) 朴趾源

〈표 11〉 지방학계의 성장과 기정진의 도전

84	1917.9.2.	關西儒學	鮮于澍 張世良 黃順承		
85	1917.9.5.	關北儒學	崔愼 李載亨 韓夢麟 李元培 劉汝豪		
86	1917.9.7.	湖南儒學	鄭介清		
87	1917.9.8.	奇正鎭	奇正鎭 및 奇正鎭의 「納涼私議」	納涼私議	
88	1917.9.11.	"	奇正鎭의 「納涼私議」	"	
89	1917.9.12.	"	奇正鎭의 「納涼私議」	"	
90	1917.9.13.	"	奇正鎭의 「納涼私議」	"	
91	1917.9.14.	"	奇正鎭의 「納涼私議」	"	
92	1917.9.16.	"	奇正鎭의 「猥筆」	奇蘆沙猥筆	

<표 12> 이항로의 굴기와 경기분열

93	1917.9.19.	洪直弼	洪直弼		
94	1917.9.21.	李恒老	李恒老		
95	1917.9.22.	"	李恒老		
96	1917.9.23.	"	崔益鉉의 辨誣	崔益鉉訟其誣	
97	1917.9.28.	"	李恒老의 明德說	明德說	
98	1917.9.29.	"	李恒老의 華西雅言	華西雅言	
99	1917.9.30.	華西門人	金平默		
100	1917.10.3.	"	柳重教	補李華西心說	
101	1917.10.4.	俞莘煥	俞莘煥		
102	1917.10.17.	"	俞莘煥의 「明德說」, 「讀書記」	尹巴江秉鼎所撰行狀 鳳棲集讀書記	
103	1917.10.19.	鳳棲門人	徐應淳	李晤堂象秀	
104	1917.10.21.	京嘉分裂	京嘉分裂	尹致聃題金洪祭綱 堂文後	京嘉兩派分裂
105	1917.10.26.	"	京嘉分裂		

<표 13> 조선후기 기타 유학자

106	1917.10.28.	老論儒學	沈定鎭		
107	1917.10.31.	少論儒學	成近默 李亮淵 姜必孝		
108	1917.11.2.	老論儒學	朴弼周		
109	1917.11.16.	嶺南儒學	柳致明		
110	1917.11.17.	"	柳致明		
111	1917.11.18.	"	柳致明		
112	1917.11.20.	"	柳致明		
113	1917.11.21.	老論儒學	吳熙常 朴胤源		
114	1917.11.22.	"	任靖周 宋稷圭		
115	1917.11.23.	湖南儒學	魏伯珪		
116	1917.11.27.	기타	南龍萬 南基萬 黃胤錫 金相 高 林宗七 尹大淳 金樂澧 朴命璧 許暖		
117	1917.11.28.	老論儒學	金相日		
118	1917.11.29.	기타	權相一 李萬運 柳尋春 許傳 宋來熙 李直輔 李鳳秀		

〈표 14〉 경화학계의 문장경술

119	1917.12.1.	正純以來 文章經術	洪奭周 金邁淳		
120	1917.12.4.	"	尹宗儀		
121	1917.12.5.	"	朴珪壽		
122	1917.12.7.	關北儒學	朱棊 朱明相		

〈표 15〉 한국유학사 총론

123	1917.12.8.	總論	總論(上)		
124	1917.12.9.	"	總論(中)		
125	1917.12.11.	"	總論(下)		

〈표 11〉부터 〈표 15〉까지는 단행본 『조선유교연원』의 권3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장지연은 奇正鎭과 李恒老를 통해 19세기 지방학계의 성장과 도전을 보여주고 洪奭周·尹宗儀·朴珪壽를 통해 19세기 경화학계의 경세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앞서 ‘당쟁과 조선유학’, ‘송시열 학맥의 호락분열’, ‘조선후기 경제지학’ 등의 구성 방식을 취했듯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지방학계의 성장과 기정진의 도전’, ‘이항로의 굴기와 경가분열’, ‘경화학계의 문장경술’ 등의 구성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듯 경가분열과 경화학계 사이의 연재 기사들은 공통적인 주제의식을 검출할 수 없는 잡다하고 산만한 인물 정보의 나열로 그치고 있어서 엄밀하게 말해 이 부분의 한국유학사 지식이 근대 역사 지식으로서 갖는 성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표 11〉은 조선후기 지방학계의 성장과 19세기 호남의 대유 기정진의 독자적인 성리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鮮于浹을 필두로 關西儒界의 동향이 소개되고 崔愼을 필두로 關北儒界의 동향이 소개된 것은 실제로 조선후기 서북 지역에 유학이 널리 확산되었고, 그 결과 대한제국기에는 朴殷植과 같은 관서지식인, 吳相奎와 같은 관북지식인이 성장하여 서울에서 서북학회의 자강운동을 이끌기까지 했던 사실이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된다.⁶⁵⁾ 지방학계의 성장과 관련하여 관서와

65) 근대전환기 관서지식인 박은식과 관북지식인 오상규에 대한 지성사적 연구로 다음 논문

관북에 이어 호남을 배치하고 鄭介淸을 소개한 것은 鄭汝立 사건 이후 호남유학이 쇠퇴하여 지방화되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고, 이어서 19세기 호남의 대유 기정진의 문제작 「納涼私議」와 「猥筆」을 대대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조선말기 유학사의 새로운 국면이 지방학계의 독자적인 理철학의 분출로 개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⁶⁶⁾

〈표 12〉 역시 이항로의 글기를 理철학의 대두에서 읽었다. 이항로의 '平生主理之見'이 유년기부터 조속했음을 특기하였고 이항로의 대표적인 성리설로 明德主理論을 소개하였으며 이항로 문하의 명덕주리설과 홍직필 문하의 명덕주기설의 대립이 급기야 이항로 문하의 金平默과 洪在龜의 徐應淳 제문으로 인해 폭발한 사건으로 京嘉分裂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경가분열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항로와 그의 신흥 학파가 새롭게 제기한 理철학으로서 명덕주리론의 역사적 의의를 함축하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학리적 다툼에서 시작한 학설논쟁이 제문 파동이라는 정치적 다툼으로 타락했음을 예증하는 사건이었다.⁶⁷⁾

〈표 11〉과 〈표 12〉가 신흥학파의 理철학과 신흥학파 대 기성학파의 충돌에 집중했음을 볼 때 그러한 논지의 흐름상 〈표 13〉에 마땅히 들어갔어야 할 내용은 영남학계 안에서 李震相이 신흥 학파를 개창했고 그가 제기한 心卽理論이 영남 지방의 정통 퇴계학과 충돌했던 사건이었다. 또한 小退溪의 별칭을 들은 李象靖의 학맥에서 '李滉-金誠-李象靖'의 도통관을 주장하는 湖論이 형성되어 屏論과 장기간 대립했던 이른바 屏湖是非도 조선 근세 유학의 중요한 문제적 현상으로

이 참조된다. 노관범, 2000 「1875~1904년 박은식의 주자학 이해와 교육자강론」 『한국사론』 43; 장유승, 2012 「19세기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그 배경」 『고전문학연구』 41.

66) 사실 「납량사의」와 「외필」이 기정진의 문제작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진 사후 문집 출간 과정에서야 율곡학과 내부에 널리 알려져 대한제국기에 치열한 논란이 일어났음을 생각할 때, 장지연이 이른바 조선후기 실학 이후 조선 유학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지방 주자학의 성장과 도전을 배치하고 다음 아닌 이 작품들을 전면화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사태를 끌어와 조선 유학사의 의미를 되문기 위한 의도적인 기억의 재점화였다고 해석된다.

67) 기정진이 理一과 氣分殊의 괴리를 극복하고 理一分殊를 회복하고자 했던 철학적 지향이나 이항로가 心을 理氣의 妙수으로 재인식하여 心舍理氣를 달성하고자 했던 철학적 지향이 조선후기 호락학파의 주자학 전통에 대한 도전과 충돌로서 긍정적으로 제시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기호학적 내부의 학파 분열의 수준이 호락분열 단계에서 경가분열 단계에 이르러 더욱 저급해졌음이 비판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서술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진상과 병호시비 모두 <표 13>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호학계의 신흥 理철학과 정치적 분열에 대해서는 그토록 주목하면서도 영남학계의 신흥 理철학과 정치적 분열에 대해서는 도리어 전혀 침묵하는 당파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표 13>의 어지러운 구성에서 보듯 조선 유학에 관한 특정한 주제 의식은 이 대목에서 실종되었으며 단지 기왕의 연재에서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서술된 유학자들을 보완하였을 따름이다.⁶⁸⁾

<표 14>는 연재를 마치기 앞서 19세기 경화학계의 저명한 인물들을 소개한 것으로 일종의 부록의 성격을 지닌다. <표 14>의 주된 관심사는 근세 문장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洪奭周가 경세가로서 치적을 남겼고, 백가에 달통한 尹宗儀도 임술민란 당시 지방관으로 치적을 남겼으며, 박지원의 문학을 잇는 朴珪壽 역시 임술민란 당시 안핵사로 활동하는 등 뚜렷한 경세적 실천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중의가 편찬한 『關衛新編』과 이에 대한 박규수의 題評이 청말 燕京學界에서 우수한 經世文編으로 높이 평가 받았음도 특기하였다. 조선 유교의 마지막 불꽃으로 경화학계의 박학과 경세를 표장한 셈이다. <표 15>는 연재물을 최종 정리한 總論인데, 한국유학사의 큰 단락을 箕子の 유교 교화와 鄭夢周의 성리학 창도(「총론(上)」), 李滉의 퇴계학과와 李珣의 율곡학과, 그리고 노소분열과 호락분열(「총론(中)」), 近世 儒學界의 名儒, 屏湖·時僻 등의 정쟁, 조선 유교의 枯死(「총론(하)」)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 <표 11>부터 <표 15>까지 해당하는 주요 내용에 현대적인 목차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에서 보듯 제3부의 한국 유학사는 기정진과 이항로를 통해 지방학계의 성장, 신흥 학파의 대두, 학파 분열의 심화 등을 차례로 서술하였으나 이후 길을 잃고 논지를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경화학계 유학자들의 박학과 경세를 소개하고 본론의 끝을 맺었다. 당론 분열에 따른 조선 유교 쇠망을 비판

68) 沈定鎮, 宋禰圭, 吳熙常의 경우 이미 앞에서 소개되었는데 다시 보강해서 소개된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표 13>에서 중심적으로 소개된 인물이 있는데, 19세기 병호시비에서 湖論으로 활동하며 학문적 성세를 높였고 1855년 사도세자의 追崇과 祔廟를 청하는 상소를 감행하여 지역 공론의 중심이 되었던 柳致明이었다. 단, 주된 관심사는 관료 활동과 상소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실천에 있었을 뿐 유치명의 성리학과 병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 總論의 관점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경화학계 부분을 삭제하고 19세기 조선 유학의 어지러운 소용돌이를 더욱 확장해서 상술하는 편이 본래의 주제 의식을 극대화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였을지 모른다. 제3부의 한국 유학사는 구성적인 면에서 볼 때 현 상태로는 미완이다.

제3부
11. 지방 학계의 성장과 奇正鎭의 도전 (1917/9/2~9/16)
1) 關西地方의 주자학
2) 關北地方의 주자학
3) 奇正鎭의 문제작, 「納涼私議」와 「畏筆」
12. 李恒老의 글기와 경가분열 (1917/9/19~10/26)
1) 洛學 전통의 권위
2) 李恒老의 글기
3) 李恒老 문하의 내부 대립
4) 京嘉分裂의 전개
13. 조선후기 기타 유학자들 (1917/10/28~11/19)
1) 영남 유학
2) 노론 유학
3) 소론 유학
4) 호남 유학
14. 京華學界의 文章經術 (1917/12/1~12/7)
1) 洪奭周와 金邁淳
2) 尹宗儀
3) 朴珪壽
총론 (1917/12/8~12/11)

2)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비교

위에서 『매일신보』에 연재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내용의 흐름에 따라 목차를 부여하고 조선유학사 지식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총론을 제외한 본론을 전체 3부 14장으로 편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필자가 편성한 시론적인 목차에 의해 새롭게 의미화된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성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자 한다.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는 사관으로 본다면 민족적 자주의식에 입각해 자국 유학사를 통관한 업적이라⁶⁹⁾ 『조선유교연원』의 유교적 도통론의 사유로부터는 벗어나 있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조선유교연원』의 아류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⁷⁰⁾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비교를 통해 『조선유교연원』의 조선유학사 지식의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양자의 목차를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6〉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과 玄相允의 『朝鮮儒學史』의 비교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玄相允, 『朝鮮儒學史』
	1. 서론 1) 朝鮮 儒學의 本質 2) 朝鮮 儒學의 朝鮮 思想史에 미친 影響 3) 朝鮮 儒學의 東洋史에 占한 位置
제1부 1. 조선시대 이전 유학사 1) 고대 유학사 2) 고려 유학사 2. 李滉 이전 조선 유학사 1) 嶺南士林의 도통 2) 國朝儒先의 계보 3. 李滉과 四端七情論 1) 李滉의 학문과 세평 2) 四端七情論의 전개 4. 李滉 이외의 주요 명현 1) 曹植과 徐敬德 2) 李恒과 金麟厚 3) 李珥와 成渾 5. 학파의 성립 1) 退溪學派의 학인들 2) 南溟學派의 학인들 3) 栗牛學派의 학인들 4) 花潭學派의 학인들	제1부 2. 羅麗時代의 儒學 1) 朝鮮 儒學의 起源 2) 羅麗時代 儒學의 學風 3) 羅麗時代의 代表的 儒學者 3. 李朝 初期의 儒學 1) 李朝의 政策과 儒學의 獎勵 2) 李朝 初期 儒學의 學問의 傾向 3) 此期의 著名한 儒學者 4) 節義問題 5) 戊午士禍 4. 至治主義의 儒學 1) 至治主義 儒學의 特色 2) 趙光祖 3) 至治主義 運動의 挫折 4) 至治主義 儒學派의 諸人 5. 性理學 1) 性理學의 朝鮮 儒學史에 占領한 地位 2) 性理學이 隆盛하게 된 由來 3) 性理學의 學風 4) 朝鮮 性理學의 내용 5)~14) 徐敬德, 李彥迪, 李滉, 曹植, 李恒, 金麟厚, 奇大升, 李珥, 成渾, 張顯光

69) 오종일, 2008 「기당 『조선유학사』의 저술 배경과 그 가치」 『공자학』 15, 74면.

70) 최영성, 2009 「조선사상사·조선유학사의 선구자, 기당 현상윤」 『오늘의 동양사상』 20, 190면.

	<p>6. 退栗 前後의 一般 名儒 1) 그 學問的 傾向 2) 그 著名한 儒學者와 學問思想의 大略</p>
<p>제2부 6. 조선의 학술 풍토와 陽明學 1) 주자학 독존의 조선 유학 2) 陽明學의 좌절 7. 당쟁과 조선 유학 1) 許穆과 宋時烈 2) 尹鑰의 경학 3) 李玄逸과 己巳南人 4) 尹拯과 老少分岐 8. 宋時烈 학맥의 湖洛分裂 1) 宋時烈의 문인들 2) 湖學과 洛學의 대립 3) 湖洛學派의 학인들 9. 李漢의 학문과 학맥 1) 李漢의 경학 2) 李漢의 문인들 3) 동시기 유학자들 10. 조선후기 經濟之學 1) 柳馨遠 2) 丁若鏞 3) 朴趾源</p>	<p>제2부 7. 禮學 中心의 儒學 1) 禮學 崇尚의 必然的 趨勢 2) 禮學派의 諸人 8. 慕華思想의 鼓吹 1) 慕華思想 鼓吹의 由來 2) 慕華思想 鼓吹의 代表者 9. 黨爭時代의 儒學 1) 儒學思想과 黨爭의 必然性 2) 黨爭의 影響과 當時 儒學者間에 發生한 諸問題 3) 禮訟 4) 尹白湖의 經傳 註解 5) 懷尼問題 6) 黨爭時代의 著名한 諸儒 10. 陽明學의 流入과 그 排斥 1) 陽明學의 傳來 2) 陽明學의 排斥 3) 陽明學의 不振과 後人의 論評 11. 湖洛學派의 分裂 1) 湖洛 分派의 原因 2) 湖洛 兩論의 代表者 3) 湖洛 兩論의 概評 12. 經濟學派의 出現과 風動 1) 經濟學派의 擡頭와 그 原因 2) 經濟學派의 學風 3) 經濟學派의 勢力과 그 代表者</p>
<p>제3부 11. 지방 학계의 성장과 奇正鎭의 도전 1) 關西地方의 주자학 2) 關北地方의 주자학 3) 奇正鎭의 문제작, 「納涼私議」와 「畏筆」 12. 李恒老의 굴기와 京嘉分裂 1) 洛學 전통의 권위 2) 李恒老의 굴기 3) 李恒老 문하의 내부 대립 4) 京嘉分裂의 전개 13. 조선후기 기타 유학자들 1) 영남 유학 2) 노론 유학 3) 소론 유학 4) 호남 유학 14. 京華學界의 문장경술 1) 洪奭周와 金邁淳</p>	<p>제3부 13. 性理學의 再燃 1) 經濟學派 運動의 不振 2) 性理學의 勢力 挽回 3) 主理派의 發達 4) 主氣派의 發達 5) 折衷派의 消長 14. 西學 感染의 騒動 1) 西學의 傳來 2) 士人의 感染 3) 世情紛然 4) 政府의 彈壓 15. 斥邪衛正의 運動 1) 運動 勃發의 情勢 2) 斥邪衛正의 運動과 그 代表者 16. 近世 以降의 一般 儒學界 1) 挽近 一般 儒學界의 學問傾向</p>

2) 尹宗儀 3) 朴珪壽	2) 그 著名한 儒學者
총론 (상, 중, 하)	17. 結論 1) 儒學의 朝鮮 文化에 남겨 놓은 足跡 2) 儒學의 未繁와 李朝의 終局

위 표에서 보듯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는 목차 구성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즉, 후자의 제1부, 제2부, 제3부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전자의 그것에 상응한다. 이는 『조선유교연원』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조선유학사』가 계승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각 부 안의 장별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제1부의 경우 전자는 조선 유학의 근원으로 箕子의 洪範을 강조했으나 후자는 이를 삭제하고 삼국시대의 국학 설립을 부각하였다.⁷¹⁾ 또한 전자는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도통 관념에 따라 조선 성리학의 중심을 명확하게 이황에 두었고, 이황에서 시작한 사단칠정론을 조선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술사로 표장했으며, 이황 이외의 명현들의 주자학을 이황보다 차등을 두어 평가했다. 반면 후자는 제1부의 중점을 조광조의 至治主義에 두고 전자가 주장한 이황의 특별한 지위는 이황 이외의 명현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상대화시켰다. 전자가 『星湖僊說』을 인용하여 조광조가 학문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함부로 經濟를 자임해 일어난 虛着取敗가 기묘사화였다는 이황의 비판을 전달했다면,⁷²⁾ 후자는 반대로 조광조와 기묘사림은 시국을 자임하는 열성과 용기가 있었는데 이황의 소극적인 출처관 때문에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적극성이 나오지 못했다는 저자의 비평을 전달했다.⁷³⁾ 또한 전자가 이이의 학문 내용이 무엇이고 저술이 무엇인지조차 서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과 달리 후자는 전자에서 이황에 이어 마련한 사단칠정론 항목을 해체시켜 이황의 사단칠정론은 이황 항목으로 이이의 사단칠정론은 이이 항목으로 분속시키는 한편 『성학집요』의 心性論을 추가하고 이이의 신설로 ‘本然之氣’와 ‘心是氣’를 제시하여 이이의 성리학을 보강하였다.⁷⁴⁾ 또한 후자는 전자의 도통론적 사유에 의해 포착되지 못

71) 『조선유학사』 제2장 「羅麗時代의 儒學」 제1절 「朝鮮儒學의 起源」.

72) 「朝鮮儒教淵源」(10) 『매일신보』 1917.4.17.

73) 『조선유학사』 제5장 「性理學」 제7절 「李滉」.

했던 정도전, 사육신, 생육신, 月·象·谿·澤 등을 포함시켰는데, 특히 사육신과 생육신의 절의 문제는 조선전기 세조의 왕위 찬탈에 맞서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했던 조선 유학의 실천으로서 특기되었고,⁷⁵⁾ 연산군대의 폐정과 사화를 거친 후 이른바 '堯舜君民'을 추구했던 지치주의 역시 이와 같은 실천에 이어 재차 시도된 중종대 '청년' 유학자들의 '실천유학'으로 특기되었다.⁷⁶⁾ 이렇게 볼 때 『조선유교연원』은 『조선유학사』와 달리 제1부에서는 퇴계도통론에 입각한 전통적인 유학사 서술에 가까운 태도로 저자가 생각하는 조선 유학의 이념형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조선유학사』는 『조선유교연원』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사상의 실천'이라는 각도에서 조광조의 지치주의를 중심으로 조선전기 유학사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기본적인 구도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선유학사』가 『조선유교연원』을 재배치하고 보강하는 수준에 머물렀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⁷⁷⁾

제2부의 경우 『조선유교연원』은 조선후기의 주자학이 주자학 독존의 학술 풍토와 붕당 간의 당쟁 위에서 퇴계학과 율곡학으로 전개되었는데, 율곡적과의 송시열 학맥에서는 이기심성론의 대립으로 호락분열이 일어났지만 퇴계적과의 이익은 박학과 개혁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조선후기 경제지학의 발흥과 연결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조선후기 유학사를 거시적으로 '주자학에서 실학으로'라고 하는 구도에 놓고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착상이다. 『조선유학사』 역시 이와 같은 착상으로 제2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설명 방식은 더욱 정치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상이하다. 전자에서 제2부의 입론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다양성과 관용성이 없는 조선 주자학의 학술적 전제주의라는 부정적인 에토스였다면, 후자에서 입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조선 주자학의 필연적인 자기 전개 과정으로서 '禮學'과 '慕華'이다. 즉, 유교적 실천윤리의 확산에 뒤따른 필연적인 추세로서

74) 『조선유학사』 제5장 「性理學」 제12절 「李珥」.

75) 『조선유학사』 제3장 「李朝 初期의 儒學」 제4절 「節義問題」.

76) 『조선유학사』 제4장 「至治主義의 儒學」 제1절 「至治主義 儒學의 特色」.

77)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를 비교하면 전자의 1장은 후자의 2장에 상응하고, 전자의 2장은 후자의 3장과 4장에, 전자의 3장과 4장은 후자의 5장에, 전자의 5장은 후자의 6장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의 예학,⁷⁸⁾ 그리고 원명교체기의 反元親明, 임진왜란의 再造之恩, 명청교체기의 反淸崇明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당쟁을 초월해 모든 당파에서 지향한 사상으로서의 모화라고⁷⁹⁾ 하는 것은 전자에서는 누락되어 있던 것으로 비록 현대사회에 미친 유교의 공과라는 맥락에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선후기 유학의 역사적 조건 또는 역사적 所興로 간주된다. 당쟁의 경우도 조선의 특정한 에토스의 문제라기보다 본래 유학사상에 내재한 君子小人論이 자기수양의 방법이 아니라 시비 해결의 수단으로 분출한 결과 일어나는 논리적 필연으로 간주된다.⁸⁰⁾ 문제는 ‘유학이 당쟁으로부터 초월하지 못하고 도리어 당쟁의 와중에 빠져 있게 되었다.’⁸¹⁾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후자는 전자에 없던 새로운 분류 항목으로 예학과 모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학자를 재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⁸²⁾ 당쟁 항목 안에도 「당쟁시대의 저명한 제유」라는 節을 만들어서 전자에서 본격적인 기술을 회피했거나 항목으로 선별하지 않은 17세기 조선 유학자들의 성리설을 적극적으로 조명하였다.⁸³⁾

아울러 후자는 조선 주자학의 필연적인 전개 과정으로서 예학, 모화, 당쟁의 유학을 서술한 데 이어 차례로 양명학, 호락학파, 경제학파를 서술하였다. 전자와 비교하여 양명학은 그대로 차용하였고 호락학파는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 경제학파는 대폭 수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양명학의 경우 전자가 제2부의 도입

78) 『조선유학사』 제7장 「禮學 中心의 儒學」 제1절 「禮學 崇尚의 必然的 趨勢」.

79) 『조선유학사』 제8장 「慕華思想의 鼓吹」 제1절 「慕華思想 鼓吹의 由來」.

80) 『조선유학사』 제9장 「黨爭時代의 儒學」 제1절 「儒學思想과 黨爭의 必然性」.

81) 『조선유학사』 제9장 「黨爭時代의 儒學」 제2절 「黨爭의 影響과 當時 儒學者間에 發生한 諸問題」.

82) 『조선유학사』는 ‘禮學派의 諸人’으로 鄭述, 金長生, 金集, 鄭經世, 宋浚吉, 李惟泰, 俞槩, 朴世采 등의 항목을 마련해 넣었다. 이에 이르러 정구는 장지연이 설정한 ‘퇴계적파’의 맥락이 아니라 예학파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으며 김장생과 김집 역시 ‘율곡적파’의 맥락이 아니라 예학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변화를 겪었다. 또 『조선유학사』는 ‘慕華思想 鼓吹의 代表者’로 金尙憲, 鄭蘊, 洪翼漢, 尹集, 吳達濟 등의 항목을 마련하였다. 병자호란 당시의 척화파를 곧 ‘모화사상’의 대표자로 설정함으로써 ‘모화’의 정서를 국난기 비분강개의 충정과 등치시켰다.

83) 『조선유학사』 제9장 「黨爭時代의 儒學」 제6절 「黨爭時代의 著名한 諸儒」. 특히 허목, 송시열, 윤희, 이현일, 권상하, 김창협, 임영, 조성기 등이 그러하다.

부에 「조선의 학술풍토와 양명학」을 배치하여 양명학을 배척한 조선 주자학의 독존적인 학술 풍토를 제2부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전면화시키고 이에 이어 「당쟁과 조선유학」을 배치하여 조선후기 유학사의 부정적인 인상을 배가시켰다면, 후자는 예학, 모화, 당쟁 문제를 서술한 후 「양명학의 유입과 그 배척」을 배치함으로써 전자가 양명학의 유입 문제에 부여한 ‘기초적인’ 성격을 탈색시켜 버렸다. 호락학과의 경우 전자가 송시열의 주요 문인들과 송시열의 성리학 내용을 소개한 데 이어⁸⁴⁾ ‘호락학과분열’을 배치하여 ‘율곡적파’ 송시열 학맥의 분열적 성격을 부각했다면, 후자는 송시열의 학문과 주요 문인들에 관한 내용은 모두 「당쟁시대의 저명한 제유」로 돌려 버렸고 호락학과를 양명학 다음에 배치시켜 상대적으로 학술적 이해를 강화시켰다. 경제학과의 경우 전자가 「이익의 학문과 학맥」에 이어 「조선후기 경제지학」을 배치함으로써 ‘퇴계적파’ 이익의 학풍과 조선후기 경제지학을 직접 연계시키는 입장을 보였다면, 후자는 전자의 「이익의 학문과 학맥」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이익과 안정복을 경제학과 범주에 흡수하여 ‘金堉-柳馨遠-李瀾-安鼎福-申景濬-丁若鏞-朴趾源-洪大容-李德懋-朴齊家-魏伯珪-金正喜」로 구성된 조선후기의 포괄적인 학파로서 ‘經濟學派=實學派’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후자는 이와 같이 경제학과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를 조선시대 유학사의 주요 국면으로 통찰하는 일종의 역사철학을 제시하였다. 즉, 조선시대 유학사의 흐름이 거시적으로 ‘實踐儒學(至治主義學派)-理論儒學(退栗以來諸儒)-實利儒學(經濟學派)’으로 나타났는데, 지치주의학파가 도덕과 정신으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면, 경제학파는 지식과 기술로 經濟濟民과 利用厚生을 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⁸⁵⁾ 이렇게 볼 때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는 제2부의 조선 유학사를 근대 역사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 거의 비슷한 세부 주제를 사용하였지만 세부 주제를 배치하는 구성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양명학 → 당쟁 → 호락 → 이익 → 경제지학’의 흐름을 보이는 전자의 구성과 ‘예학 → 모화 →

84) 「조선유교연원」에서 송시열에 관한 소개는 『매일신보』 1917년 7월 8일 기사에 있지만 정작 ‘尤庵之學專主氣而未嘗主理’라 하여 그 성리학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일신보』 1917년 7월 18일 기사에 있다.

85) 『조선유학사』 제12장 「經濟學派의 出現과 風動」, 제1절 「經濟學派의 擡頭와 그 原因」.

당쟁 → 양명학 → 호락 → 경제학과'의 흐름을 보이는 후자의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주자학에서 실학으로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전자는 양명학 문제를 통해 제1부와 제2부의 단절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예학과 모화 문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제1부와 제2부의 연속성을 중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제3부의 경우 조선후기 실학 이후의 조선 유학사에 대해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는 접근 경로는 동일하나 평가 관점은 매우 상이하다. 양자의 목차 구조에서 가장 상이한 부분이 바로 제3부이다. 전자는 제3부의 주요 유학자로 기정진과 이항로를 선택하고 이들을 통해 19세기 조선 신흥 주자학의 양면성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학문적 측면에서 기호학계 내부에도 퇴계학과 유사한 理철학이 생성되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호락분열보다 저급한 경가분열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理철학의 확장과 율곡학과와의 정치적 분열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 논지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산만하게 잡다한 유학자 나열만 하다가 뚜렷한 맥락 없이 경화학계의 경술문장이라는 주제로 끝마쳤다. 반면 후자는 제3부가 경제학파가 부진한 결과 성리학 세력이 만회된 반동적 국면임을 전제하는 가운데, 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정진과 이항로를 중심으로 조선 주자학을 성찰하되 그저 퇴계와 당쟁 밖에 모르는 전자의 협애한 시각에서 벗어나 19세기 조선 주자학의 역사적 실천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조선 주자학과를 理철학에 한정하지 않고 철학적 스펙트럼에 따라 主理派, 主氣派, 折衷派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주리파의 경우 영남과 기호를 구별하여 영남의 주리파(李裁, 李象靖, 柳致明, 李震相, 郭鍾錫)는 퇴계설의 옹호와 율곡설의 배척이라는 당쟁의 감정에서 주리설을 주장하였고 기호의 주리파(奇正鎭, 李恒老)는 당쟁과 무관한 순전히 학문적 동기에서 주리설을 주장했다고 평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⁸⁶⁾ 또한, 이이, 송시열, 한원진 등 율곡학과와의 전통적인 '心是氣'론을 넘어서는 주기파로 '任聖周-任靖周-任魯-任憲晦'를 꼽았고,⁸⁷⁾ 율곡학과 내부에서 퇴계설과 율곡설을 절충한 김창협외의 성리설을 계승하는 절충파로 '金昌翁-金元行-吳熙常-鄭宗魯-田愚'를 꼽았다.⁸⁸⁾ 이 삼파의 주자

86) 『조선유학사』 제13장 「性理學의 再燃」 제3절 「主理派의 發達」.

87) 『조선유학사』 제13장 「性理學의 再燃」 제4절 「主氣派의 發達」.

학은 비록 경제학과 이후의 반동적인 성격은 있었지만 경제학과 이전의 형식적인 주자학과 비교하면 이론과 체계를 일신한 새로운 주자학이라 평가하였다.⁸⁹⁾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론유학이 아닌 실천유학이었다. 조선시대 유학사에서 운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앞서 지치주의학과의 운동과 경제학과의 운동을 강조했던 『조선유학사』는 그 마지막 단계로 ‘斥邪衛正의 運動’을 전면화했다. ‘척사위정의 운동’이란 대내적으로 守舊 운동, 대외적으로 사상적인 斥洋 운동, 정치적인 斥倭 운동을 뜻하는 것으로, 국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척왜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교문화의 미덕인 인륜도덕을 수호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으로서 수구의 중요함이 역설되었다. 변혁기에 외래 신사상의 수용에 급급한 나머지 전통사상의 미덕을 파괴하는 폐단을 경계하는 의식에서였다.⁹⁰⁾ 이 운동의 주역은 春秋大義와 國家安危에 관심을 쏟았던 이항로의 문하에서 주로 나왔다고 특기되었다.⁹¹⁾ 대조적으로 主理主氣의 이론유학도 아니고 斥邪衛正의 실제운동도 아닌 제3의 유형으로 ‘文章의 修練과 學識의 博洽’에 치중하던 ‘一般 儒學界’가 비판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들은 유학의 이론이나 실천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저 문장과 박학을 자랑하는 文勝의 폐단을 노정하였다고 평가받았다.⁹²⁾ 『조선유교연원』의 맨마지막 ‘京華學界의 文章經術’에 배치된 洪奭周, 金邁淳, 尹宗儀, 그리고 ‘李恒老의 굴기와 京嘉分裂’에 이항로 문하의 대립향으로 배치된 洪直弼, 兪莘煥, 徐應淳 등이 모두 이 ‘일반 유학계’에 배치되는 수모를 입었다.⁹³⁾ 이렇게 경제학과 이후 조선 주자학의 삼대 유파, 곧 이론유학, 실천유학,

88) 『조선유학사』 제13장 「性理學의 再燃」, 제5절 「折衷派의 消長」. 鄭宗魯의 절충론에 대해 주리파로 가득한 영남지방의 환경에 비추어 학문과 진리에 공평하고 충실했기 때문이라 높이 평가하였다.

89) 『조선유학사』 제13장 「性理學의 再燃」, 제2절 「性理學의 勢力 挽回」.

90) 『조선유학사』 제15장 「斥邪衛正의 運動」, 제1절 「運動 勃發의 情勢」. 이와 관련하여 현상윤이 일제식민지시기에는 서양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조속한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주자학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해방 후 서양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적 수립이라는 당면 과제를 위해 주자학의 덕치와 수신을 재평가하였다는 연구가 있다(이태훈, 2011 「해방 후 현상윤의 儒學인식과 사상적 지향」 『한국사상사학』 38, 240-241면).

91) 『조선유학사』 제15장 「斥邪衛正의 運動」, 제2절 「斥邪衛正의 運動과 그 代表者」.

92) 『조선유학사』 제16장 「近世 以降의 一般 儒學界」, 제1절 「挽近 一般 儒學界의 學問傾向」.

93) 그 밖에 ‘일반 유학계’에 배치된 유학자는 權相一, 朴胤源, 沈定鎮, 慎後聃, 宋穉圭, 李載

일반유학의 구별은 『조선유교연원』에서 상상하지 못한 『조선유학사』의 창견이었다. 국망 직후 조선 유교의 '쇠망'을 회억하는 전자의 감성과 해방 직후 조선 유교의 '운동'을 재평가하는 후자의 감성 사이에는 역사적 심연이 자리하였다. '쇠망'의 맥락에서 이항로 문하가 초래한 '경가분열'을 부정적으로 특기한 전자의 관심과 이를 삭제하고 대신 '운동'의 맥락에서 이항로 문하가 수행한 '척사위정'을 긍정적으로 특기한 후자의 관심은 조선 말기 주자학에 관한 양자의 시각이 얼마나 상이했는지를 알려 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결국 『조선유교연원』은 『조선유학사』와 비교해서 근대 역사 지식으로서 한국 유학사 지식을 만족스럽게 창출하지는 못했다. 『조선유교연원』은 한국 유학사를 세 단락으로 구분하였는데, 제1부는 기자의 유교 문명 개창과 이황의 주자학 집대성으로 요약되는 성장·번영의 시기, 제2부는 당쟁의 빗장이 풀린 뒤 '율곡적파' 송시열 학맥의 주자학과 호락분열, '퇴계적파' 이익 학맥의 주자학과 경제지학이 대조를 이루는 쇠퇴의 시기, 제3부는 신흥학과와 理 절학과 경가분열이 발발한 종말의 시기로 그려졌다. 『조선유교연원』은 본질적으로 한국유학사 서술에서 이황과 당쟁을 최우선시했고, 그랬기에 제1부에서 이황 중심으로 구도를 설정하여 퇴계도통론에 의한 계보 지식을 제시하였다면, 제2부에서는 당쟁을 중심으로 구도를 설정하여 율곡학과와 퇴계학과와 개혁성을 대비시키는 역사 지식을 제시하였으며, 제3부에 들어와서는 이를 심화하여 율곡학과와 퇴계학과를 더욱 강조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유교연원』의 구성적 지식을 계보 지식에서 역사 지식으로 변화시킨 실질적 動因은 장지연이 혐오한 당쟁이라는 키워드였다. 그는 조선시대 유학사 서술에서 당쟁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허목과 송시열 같은 당쟁기의 거유들을 극히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율곡학과와 당쟁은 호락분열과 경가분열로 상세히 제시하더라도 퇴계학과와 당쟁만큼은 은폐해 버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은 구성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유교연원』의 실질적인 조선유학사 서술의 동력을 약화시킨 이율배반적인 행위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유교연원』의 한국유학사 지식은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역

후, 李友信, 姜必孝, 朴文一, 朱明相, 金興洛 등이었다. 『조선유학사』 제16장 「近世以降의 一般 儒學界」 제2절 「그 著名한 儒學者」 참조.

사 지식 이전의 계보 지식(제1부), 완성된 역사 지식(제2부), 미완의 역사 지식(제3부)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지식들이 공존하였다. 필자는 이것을 초창기의 근대 한국학 저술에 나타나는 ‘구성적 지식의 비균질성’이라 명명하고 싶다. 반면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는 조선 유학의 거시적 전개 과정을 실천유학과 이론 유학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보는 역사철학을 갖추었고, 조선유학사의 중요한 실천유학을 지치주의 운동(제1부), 경제학과 운동(제2부), 척사위정 운동(제3부)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선유교연원』과 달리 ‘구성적 지식의 균질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중심으로 근대 한국유학사의 형성을 논구한 것이다. 『조선유교연원』이 단지 전통적인 인물 계보 지식에 머물러 있고 사상사로서 근대적인 역사 지식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의심하는 이 글은 『조선유교연원』이 세부적으로는 인물과 학설의 자료집으로 비칠지 모르나 구성적으로는 한국 유학사를 통관하는 근대 역사지식을 구축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조선유교연원』 이전의 전통적인 한국유학사 저술들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근대전환기 한국유학사의 사관들을 특징적으로 검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유교연원』의 역사적 위치와 당대적 연계성을 검출하였다. 둘째, 『조선유교연원』을 단행본으로 독해하는 대신 신문 연재물로 독해하여 작품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유교연원』의 근대적 학술서로서의 목차 체계를 새롭게 검출하였다. 셋째, 『조선유교연원』의 내적 구조를 통해 재현된 목차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의 한국유학사 지식의 같고 다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유교연원』이 성취한 근대 역사 지식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학사 문헌들은 『조선유교연원』의 유학사 지식의 직간접적인 원천이 되었지만, 전자가 주자학의 성현도통 관념을 적용하여 자신이 속한 학파, 봉당, 지역의 기준에 합당한 도통의 계보적 지식을 창출하였다면, 후자는 근대전환기 한국유학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입각해 이와 같은 특정 계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역사 지식을 창출하였다.

둘째, 『조선유교연원』의 편찬자 장지연은 근대전환기 한국유학사를 성찰하는 특정한 사관을 갖추었고, 이에 따라 조선시대 유학사를 조선전기의 이상적인 조선유학, 조선후기의 역사적인 조선유학, 조선말기의 절망적인 조선유학으로 구별하였다. 여기에는 동시기 심기택의 「아동도학원류서」에서 보이는 정조·순조 이후 조선 유학 쇠망론, 신기선의 「도학원류」에서 보이는 유교 망국론, 안확의 「유교의 진화와 신유」에서 보이는 유교 진화론 등과 대비되는 한국유학사관이 발견된다. 특히 심기택의 글은 『조선유교연원』 「총론」에서 차용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매일신보 연재물로서 『조선유교연원』을 새롭게 독해하여 검출한 목차 체계에 따라 『조선유교연원』의 한국유학사를 세 단락으로 구분하면, 그것은 기자의 유교 문명 개창과 이황의 주자학 집대성으로 요약되는 성장·번영의 시기(제1부), 당쟁의 빗장이 풀린 뒤 율곡적과 송시열 학맥의 주자학과 호락분열, 퇴계적과 이익 학맥의 주자학과 경제지학이 대조를 이루는 쇠퇴의 시기(제2부), 지방 신흥학파의 이철학과 경가분열이 발발한 종말의 시기(제3부)로 요약된다. 『조선유교연원』은 본질적으로 한국유학사 서술에서 이황과 당쟁을 최우선시했고, 그랬기에 제1부에서 이황 중심으로 퇴계도통론에 의한 계보 지식을 창출했고, 제2부에서 당쟁 중심으로 율곡학파의 분열성과 퇴계학파의 개혁성을 대비하는 역사 지식을 창출했다. 제3부는 이를 심화하여 율곡학파의 분열성을 더욱 강조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체계적이고 잡다한 혼란스런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한국유학사의 구성적 지식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였다. 전자는 역사 지식 이전의 계보 지식(제1부), 완성된 역사 지식(제2부), 미완의 역사 지식(제3부)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지식들이 공존하였는데, 이는 초기 근대 한국학 저술에 나타

나는 ‘구성적 지식의 비균질성’이라 명명될 수 있다. 후자는 조선 유학의 거시적 전개 과정을 실천유학과 이론유학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읽고 조선유학의 중요한 실천유학을 지치주의 운동, 경제학과 운동, 척사위정 운동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와 달리 ‘구성적 지식의 균질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점에서 근대 학술서로서 『조선유학사』와 비교되는 『조선유교연원』의 과도기적 성격을 간취할 수 있다.

『조선유교연원』은 근대 한국유학사의 형성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문헌으로 손색이 없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자국유학사 지식이 어떻게 『조선유교연원』에 도달했는가, 『조선유교연원』의 근대적인 자국유학사 지식이 어떻게 『조선유학사』를 거쳐 해방 후 한국유학사 연구에 도달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조선유교연원』의 근대 학술서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또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조선유교연원』과 『조선유학사』 이후 모든 한국유학사 저술에서 한국유학사에 대한 구성적 지식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전체적인 목차 구조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구성적 지식의 견지에서 한국유학사를 시대적으로 인식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 『조선유교연원』의 학술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유학사, 장지연, 조선유교연원, 한국학, 주자학

투고일(2016. 4. 19), 심사시작일(2016. 4. 22), 심사완료일(2016. 5. 10)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 focused on Jang JiYeon's JoseonYukyoYeonweon –

Noh Kwan Bum*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focusing on Jang JiYeon(張志淵)'s JoseonYukyoYeonweon(朝鮮儒教淵源), the first book of this kind in the modern Korea. This book has been considered as the primary source book rather than research book. Little interest was in the modern achievement of this book in this field. But can we find no modern historical knowledge in it?

This paper approaches this book from this question, and reaches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was long tradition to compile works on the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in Joseon Korea, but unlike those works to produce only hagiographical knowledge this book has displayed specific views of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Second, this book took pessimistic view that Korean Confucianism had declined since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正祖) and Sunjo(純祖), originating from the work titled AdongDohakWeonlyuseo(我東道學源流敍) by Shim Ki Taek(沈琦澤). Third, this book take three parts in it, and each part has different level of completeness. The so called Yi Hwang(李滉)-centered geneology is central to the first part, the factional contrast of conservatism in Yi Yi(李珥) School and reformism in Yi Hwang(李滉) School is core in the second part. This book offered as key points of Korean Confucianism Yi Hwang-centered geneology and the factionalism between different schools. Last, the basic structure of this book can be found in the book titled JoseonYuhaksa(朝鮮儒學史) by Hyeon Sang Yun(玄相允)

* Assistant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rtly after the liberation of 1945. Through JoseonYuhaksa the academic influence of this book was strengthened.

Key Words :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Jang JiYeon, JoseonYukyoYeonweon, Koreanology, Chuzi School